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產業視察團을 보냄

社會的使命이重大

一

本社가 今年 三、四、五月의 三個月에 亘하야 創刊十五週年、紙齡五千號、新築落成의 三大慶事가 連疊하야 이것을 記念코저 十五大事業을 天下에 發布한것은 世人의 周知하는바이다。오늘 그十五大事業의 先驅手로 日本內地에 產業視察團을 派送하게되것은 團員諸氏와 더부러 本社의 자랑으로 생각하는바이다。特히 오늘 四月二十六日이 花紅柳綠한 惜春佳節 일뿐아니라、本社의 革新一週年에 當하는것을 생각할때 一層 그出發이 意義잇고 愉快한 일이라 안흘수업다。

二

생각하면 現下 朝鮮은 產業的으로 文化的으로 다른 社會에 比하야 만히 뒤떠러진것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이러하야 先進한 社會의 築成한 文化와 產業을 硏究하고 解剖하야서 이것을 輸入하야 吾人의 文化 吾人의 產業으로 化하는것은 目下 吾人의 緊急한 使命이다 海外에 留學生을 派遣하며 海外에 觀察員을 送함도 이런 意味에서 나온 企圖일것이다。本社가 今次 朝鮮에 有數한 實業家를 網羅하야 產業的으로 日本內地의 各府工都市를 觀察하게되것은 單純한 旅行에 끄치라는目的에 잇지안코 그곳 產業事情을 視察하고 硏究하고 도라와 우리 社會에 그만한 發葬을 促成함에큰寄與가 되것을 밋는때문이다

三

今次 產業視察團의 視察할 코스는 可謂 東洋의마췌스타라할 만한 大阪의 商工業을 一覽後 日本近古의 文化를 그대로 保存하고 山水와아울러 明媚한 京都를보고 기픈우브으두이 平靜한 琵琶湖上을東悲으로바라보면서 織物市의 都市인 福井市와 北日本의 雄府인 金澤、新潟을 지나서 近代政治、產業、文化의 자랑인東京에 드러선다 東京서 數日間 觀察한 一行은 自然과 人工의合作으로 日本一의 美를 자랑하는 日光을 구경하고、歸路에中部地方의 商工都市 名古屋과神戶를 본後 平穩한 瀨戶內海의風光을 船上에서 點指하고 別府溫泉에서投泊後 歸京한다。이만하면 日本內地의產業과 文化와 自然을 理解함에 充分하지아니할가。

四

時日이 三週間이므로 그 核心을 完全히 究明하리라 고까지는斷言키 困難하다。 그러나 整潤한 道路와 整理된 田野와 繁華한 市街와 敏活한生活競爭과美麗한 自然만 보아도 그 文化의 大略을 斟酌하겟거든 本社의 特別한 周旋으로商工業 其他 重要한 部分의 內面을 觀察할수잇슴에랴。團員 觀察團은 반드시 有終의 美를 收할줄로 信하야 不疑하는바이다。어찌本社만의 期待뿐이리오 行程實으로 永陸萬餘里、旅日二十日不少한團員이 途中 何等의 支障이 업시一路 安穩히 다녀와 다시本社前에서 團員의健康한 氣息을對하기를 出發에 臨하야 비는바이다。

獨逸態度强硬에 英國支持斷念?

모든親獨的努力도虛事라고

反獨氣勢漸次濃厚

歐洲에再突風!

【倫敦廿三日發電】 獨逸의 聯盟理事會에對한 理事會와 理事國에의 回答은 復活祭休暇中에 發送受理되엇스므로 今日까지에는 아직 正式으로 問題가되어잇지 안호나 드듸어 休暇終了後 廿三日에 至하여서는 또다시 歐洲各國에 亘하야 問題를 揚起할것이라고 一般으로 豫想하고잇다 英國에서는 最初에 聯盟非難의 聲이 노파젓는데 獨逸이 理事會에 對하야 强硬히 抗議하고 잇슬뿐만아니라 當初부터 가장 親獨的態度를 示해온 英國에 對해서도 아모容赦업시 不滿을 投擲하고 잇기때문에 極度로 親獨的이던 輿論은 漸次로 薄弱해가는 傾向을 認定할수잇다 特히 英國으로서는 獨逸의 聯盟復歸를 唯一의 希望으로하고 이에 依하야 獨逸의 平等權을 各國에 確認시키려고 모든 努力을 해왓는데 지금에 獨逸이 將來 羅馬會議에도 不參加를 暗示하고 聯盟復歸도 可望이 稀薄해젓기때문에 獨逸로서 이와가티 한다면 이以上 더 獨逸을 支持할 必要는 업다는 意見이 强해젓다 그런데 英國으로서 지금 獨逸을 버리고 돌보지안는다면 歐洲各國이 方在 直面한 危機는 到底히 救할수 업다 이러해서는 一旦 好轉한 時局이 다시 여기에 急轉直下로 再次 重大化하지는 안을가하는 不安을 품고잇는이도 만타 如斯한 狀態에 잇기때문에 廿三日에 英國政府가 如何한 態度를 決定할는지 興味가 集中되어잇다

新西蘭首相오타와着

【오타와二十四日發聯合】 뉴질랜드首相포-스氏는 倫敦에赴하는途中二十四日오타와에 들넛는데 英帝國會議開催問題에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目下英帝國國防問題와 英國의外交政策을 審議할 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一事一言

天災

長白山人

臺灣의 地震은 記錄上에 最大한것이라 하고 死傷者八千七百、罹災者十數萬이라고 傳한다。同情할 일이다。

이 地球는 사람이 살기에 그다지 安全한데도 아니어니와 安全한데도 되지못한다。언제나 안즌 자리 미테서 火山이 터질는지、땅이 갈라질는지 모르는 것이다 또 다라나는 地質學者의 말에 依하면 北極地方의 溫度가 一夜間에 熱帶에서부터 寒帶로 變하여서 거긔 살던 動植物의 大部分이 선대로 全滅을 하엿다하고 지금은 洋洋한 地中海도 옛날에는 人類의 文化區域이던것이 突然히 陷沒된것이라 하니 이 地球는 참으로 맘노코 살수업는 위태한 집이다。

하물며 우리 人生의 生命이 아츰에 살아서 저녁을 미들수 업고、저녁에 잘때에 이튼날 살기를 기약할수 업스니 명일을 이 풀닙에 이슬 갓다 함이 조곰도 보탠 말이 아니다。

이러케 미들수 업는 地球에 하로살이 갓고 풀 [illegible] 러 사는 人類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호고 서로 누르고 서로 잘난체 하야 원망으로 가슴을 아프게하는것은 참아 못할 일이오 어리석은 일이다。人生의 運命을 正觀할때에 우리가 가질수잇는 唯一한 感情은 피차에 불상히 여기고 피차에 사랑하고 위로하는것밧게 더 잇스랴。釋迦의 慈悲나 예수의 사랑이 이러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臺灣의 十數萬의 罹災者 그들도살라고 애를 쓰다가、서로 미워하고 할퀴고 누르고 속이고 해하고 싸호다가 하여서 잡어라고 애를 쓰다가 땅이 한번 움지기매 이 애쓴 보람이 물거품 가티 살아지고 말앗고나。天災업는 地球가 어듸 잇스랴。사람과 사람의 慈悲心만이 오직 이 天災의 豫防이오 救濟당

定例次官會議

臺灣震災義捐金

各省百分一、拓務百分二

【東京電話聯合】 定例次官會議는 二十五日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入江次官으로부터 臺灣의震災狀況에對하야 詳細報告한後 各次官間에 情報와意見交換을行하고 各省官吏의 義捐金拋出에對하야 各省百分一、拓省百分二로 하기로決定하고 午後一時半散會하엿다

獨波密約成立?

歐洲政界에大衝動

【리온廿一日發聯合】 不可侵條約이 締結된 以來 獨波兩國政府는 特히 親善關係를 持續하고 잇던바 果然 獨波兩國政府間에 密約이 成立되엇다는 報道가 傳하야 歐洲政局에 衝動을 與하고잇다

【巴里廿一日發聯合】 獨波密約에 對하야 佛國政府當局은 一切批評을 避하고잇는데 消息通은 主로 蘇聯이 目標다는 說하고잇다 右에 對하야 獨逸外務省은 正面으로 否定하고 廿一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波蘭政府와의 사이에 密約이 成立되엇느니 어쩌니 하는것은 우숨거리다 如斯한 報道는 再三 否定하고 잇스므로 다시 否定할것도 업다

【월소우廿一日發聯合】 獨波密約에 對하야 波蘭政府當局은 『利用하기爲한 宣傳에不過하다』고 否定하고잇다

【리온廿一日發聯合】 리온市의有力新聞 『사루리-돈』은 獨波兩國間의 軍事同盟密約正文이라는것을 廿一日 紙上에掲載하고 如左히報道하고잇다

一、獨波兩國政府는 一九三四年一月 秘密軍事同盟을 締結하엿다

一、右密約에서 兩國政府는第三國의 侵略이 잇는境遇에는軍

倒閣을目標로하면 聯携一擧淸算?

民政黨內强硬論擡頭

【電通東京電話】 二十四日政民聯携委員會는 表面的으로는 審議會問題에關係업고 聯携는從來와 갓치繼續하기로 一致되어 審議會委員의問題도 次回까지延期하기로되엿는데 民政黨에서는 此에 依하야 政友會의參加에 一脈의希望을부치고잇다 그러나 此에反하야 政友會가 全然此를 拒絕하고 機關說問題其他로써 倒閣一貫으로 進行할境遇에는 民政黨은 與黨으로서 이에反對하야 結局聯携는 實質上破綻을生할것은 明白하며 그러케되면 그時에는 何時까지나 聯携에未練을 가지지안코 一擧에此를淸算하야 立場을 闡明히할 것이라고 强硬論의擡頭를보려하고잇다

佛蘇互助條約

蘇聯、實現에努力

스탈린氏리外相과凝議

【莫斯科廿二日發電】 【크렘무린】 에서 目下 論議하고잇는 對外政策의 中心은 佛蘇相互援助締結에關한 問題이다 蘇府에서는 요즘 리트비노프外相은 政府巨頭와 最近 對外政策問題 特히 佛蘇關係에 注意를 하고잇는 스탈린氏에게 直接으로 佛國態度가 갑작이 變한 原因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를 하엿다 또 이와同時에 今後 蘇聯政府가 如何한 態度로 臨할것인가에 對하야 重大한 協議를 進行하고잇다 如何튼 月下의 空氣로는 이대로 決裂될리는 업슬것이오 아마 蘇聯側은 어떤 形式으로 同盟實現에 努力할것이라고 解釋하는편이 만타

時局打開方策

伊波意見一致

【베네치아廿一日發聯合】 波蘭外相 벡大佐는 廿一日 베네치아에서 伊太利外務次官 스비치氏와 會見하고 現下 歐洲政局全般에 對하야 隔意업는 意見을 交換하엿다 會談의 結果 兩國代表는 時局의 打開策에 對하야 完全히 意見이 一致되엇다 고한다 事的、經濟的、또는全般的인 意見을 交換하야 互相援助하기로함

나치스獨逸은 平和의破壞者!

聯盟理事會決議는編見的取扱이아니다

맥首相의反獨論調

【電通倫敦二十四日發】 맥도날드英首相은 首相一派의 機關紙인 『뉴스·레터』에서 最近의 國際情勢를 論하고잇는데 그中에서 獨逸을 糾彈하야 如左히 述하고잇다

獨逸은 平和에의 길을 破壞하고 이를 恐怖로서 채웟다 獨逸은 他國에 對하야 獨逸이 平和的 意圖를 가지고 잇다는 口頭의 契約을 受容하라고要求하면서 제 自身은 隣接諸國의 同樣契約을 受容하려고 하지안는다 獨逸은 거의 歐洲全國民에게 疑惑의念을 이르키게한 者이다 聯盟理事會가 獨逸의 行動에 不安과不承認을 與하엿슴으로서 自國政府의 行爲가偏見으로서 取扱되엿다고眞實한 驚愕을感할수 잇는獨逸人은 업슬것이라고 나는밋는다(寫眞은맥首相)

陸軍兵員增員

七月一日로實施

米陸軍省公表

【電通華盛頓廿四日發】 米國陸軍省公表=今年議會의 承認을어든陸軍兵員增員은 來七月一日부터 實施할터인데 卽現在十一萬八千七百五十名을一擧에 十六萬五千名으로 하는것으로米國陸軍이 傭兵을實施하는것은 最近數年에는업섯든것이다

極東軍備縮少로

歐洲國境에移駐?

蘇聯、對獨戰線强化

【齊齊哈爾二十五日發聯合】 某所着 情報에 依하면 最近蘇聯邦에서는 極東軍備를 縮少하야 歐蘇西部國境方面에 移動할 準備를 하고잇는 模樣으로 치타赤軍 在營中의 一將校로부터 滿洲里에 居住하는 父母에게 보낸書翰에 依하면 最近 獨逸이 西部國境地帶에 增兵한데 鑑하야 蘇聯軍部는 치타와 다우리아로부터 二個師團의 兵을 歐蘇國境에 移駐시키기로 決定하고 目下 치타에서 軍用列車編成을 急히 行하고잇는 模樣이다

海軍演習에關한 米海軍長官言明

【電通華盛頓廿四日發】 스완슨海軍長官은 二十四日 米國海軍의 演習과 그後豫定에 關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主力艦、戰鬪艦隊는 五月三日前後 西海岸을 出發하야 東太平洋上에서 演習을 行한後 五月末 布哇를 訪問하야 一週間 碇泊한다음 싸디에고에 向할터이다

米中定期飛行

八月末頃遂開始

【電通아라메다二十四日發】 米中連絡 太平洋定期航空路 調査機 汎米航空會社所屬 크리퍼大飛行艇의 布哇 아라메다間의 試驗飛行은 大成功을 거두고本格的 對中定期飛行은 八月末頃

伊「에」國境서又復

伊隊商襲擊

一名을慘殺三名重傷

【羅馬二十四日發聯合】 아스마라(에리트리아)로부터의 報道에 依하면 伊太利領에리트리아와에디오피아國境에서 又復아비시니아人이 國境을通過하는隊商을襲擊하야 一名을慘殺하고三名에重傷을負케하야 紛糾를惹起하엿다

齊多庫倫間의 鐵道工事에着手

滿洲를버리고外蒙古에進出

蘇聯極東政策一轉換

【電通天津廿五日發】 當地 外人方面에온 情報에 依하면 一九二六年 蘇聯이 外蒙政府로부터 建設權을 獲得한 齊多·庫倫間四百哩의 鐵道는 財政難때문에 未着手하고잇는바 北鐵交涉成立을 契機로 建設하기로 決定하고 多數의 材料기齊多에 運搬되어 五月中旬頃부터 施行하려고 이미中國人 朝鮮人勞働者數千이 齊多에 集中하여 잇다고한다 그리고 右는 蘇聯이 滿洲를 버리고 外蒙을 地盤으로하야 北中國에 進出하려는 東方政策의 大轉換이라고重大視하고잇다

蔣介石氏 病은事實

【南京廿五日發聯合】 當地 某所着 情報에 依하면 目下 貴陽에잇는 蔣介石氏는 今月二十日 以來 病臥中이던바 二十二日 參謀團을 通하야 醫師를 派遣해 달라고要求해 왓스므로 參謀團에서는 直時 米國人醫師及 護婦 數名을 飛行機로 急派하엿다 그리고 貴陽에서는 그後 아직 右에 關한 情報가 업서 念慮되고잇다

拓務省關係 新採用者配屬決定

【電通東京電話】 拓務省關係의今年의 有資格者 採用은 先般 拓務省에서 希望者 百二十一名에 對하야 統一銓衡한 結果 十一名을 採用하고 本省 二名 朝鮮、臺灣兩總督府 各四名 樺太廳 一名을 各各配屬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兒玉拓相은 學校를 갓나온 此等 新採用者에 對하야 于先 拓務行政의 本質을 認識케 하기爲하야配屬前에本省에서 統一的敎育을施하기로되엿다

義務敎育과財源

鄕校、寺刹、不用官有財用의編入

【十】 咸尙勳

B、鄕校財產의編入

둘재는 鄕校財產을 編入하는 것이다。元來

鄕校 는 세가지 使命이 잇섯스니 하나는文廟를 두어 地方의 兩班、儒生들로하야곰 孔孟을 奉祀케하는 것이오、또하나는 鄕校를 두어 鄕民의 子弟들을 敎育하는 同時에 鄕儒를 敎化하는것이오、또 다른 한가지는 鄕中의 孝子烈婦를 表彰하야 德化를 하는것이엇섯다。그러므로 옛날 地方에는 敎化機關으로 업지못할 存在엿섯다。그러나 今日에 와서는 이 鄕校의 存在理由는 업서젓슬뿐아니라、도리혀 腐儒들의名利爭奪場이 되고말앗다。그有害無益뿐아니라 有하야 弊害만을 鄕校의 財產을 義務敎育費에 充當한다하면 얼마나 現實的 價値를 가지랴。勿論 名目上으론 社會事業에쓴다祭享에 쓴다 하얏지만 어떤 社會事業에다 쓰는가 吾人의 아는바로는 이러타 할것을 알지못하얏다。

鄕校財產은 鄕校 一百二十二個所

文廟 三百三十個所 合五百五十二個所의것을 合하야 一千餘萬圓이오、그 一年收入이 五十餘萬圓이라 한다。一千餘萬圓이라 하면 決코 적은 財產이 아니다、五十萬圓이란 收入은 그 經營의 缺陷에 잇거나 財產性質上 建物等 商品으로 不適當한 理由에 基함지니 이것을 整理하야 善히 管理한다면 年百萬圓의 收入은 걱정업슬것이다。

C、寺刹財產의編入

셋재 寺刹財產의 編入이다。往時에 東晋으로부터 傳來하야 百濟、新羅에 燦然한 文化를 이르우고、高麗末葉까지도 隆盛하얏스나 高麗末葉으로부터 漸次 弊害가 생기기 始作한 佛敎는 李朝에 이르러 政府의 壓迫과 아울러 荒廢의 그極에 達하고 日韓合併後 明治四十四年 十月

寺刹 令이 施行되야 傳法、布敎의 宗敎的 活動을 公認하얏다 하드래도 布敎所를 百四十七 設置하고 若干의 學校를 經營하는 外엔 山間에 蟄伏하야 何等 社會的交涉이 업다。佛敎가 그 使命을 다하지못하고잇는 現下에 잇서서 그 財產을 五千七百의 僧侶와 一千八十의 尼僧의 食糧에 供하고、三十一本山住持들의 名利의 角逐對象이된 現在에 잇서서는 人民의 現實的 緊急事인 義務敎育事業에 그財產을 全部 編入함이 조흘것이다。

寺刹은 本山 三十一과 末寺 一千三百十三을 合하야 一千三百四十四個所를 占하고 그 所有田宅山林은 朝鮮의 어느 團體의 財產보다 만타。當局에서는 이 財產의 一切를 秘密에 附하고 오즉 年收入 大略 百萬圓이라는것만을 發表하지만、經理에 어둡은 寺刹의 年收入이 百萬圓이라면 財產이 二、三千萬圓을 不下할것이다。

D、不用官有財產의編入

다음은 不用官有財產의 編入이다。官有財產에는 一般官有財產과 特殊官有財產이잇는데 이것을 除한 一切의 財產을

公用 財產과 不公用財產으로 나눌수잇다。

前者는 直接國家의 用에供하는 財產이오 不用財產은 直接國家의 用에 供치안는 卽收益財產이다。收益財產은 昭和七年度以降五個年計畫으로 整理中인데이것을 義務敎育費의 基金에編入하면 그効果는 클것이다 昭和九年度末現在 不用財產은 土地 一百四十萬圓 建物及附屬物 一萬八千坪 四十萬圓 船舶及屬具 四艘 一萬三千餘圓이다。

E、驛屯土收入의編入

다음은 驛屯土、堤堰狀及其附屬物의 編入이다 元來

驛屯 土는 公有地로 日韓倂合後 國有地로 編入하야 年年原住民에게 貸付하거나 年賦로 拂下하야온다하지만 小作人은 事實上 貧寒하야 買入할수업고 結局資產家에買收되다 昭和八年度의 有料貸付地의 面積은 四千五百六十七町步 貸付料 十一萬五千餘圓이오、年賦賣却契約中의 土地는 三千三百餘十町步、分納代金은 十四萬二千圓이다。그리고 昭和八年末現在驛屯土面積은 四千八百二十四町步 價格은 二百二萬一千圓、堤堰狀及그附屬地는 面積六百町步、價格 十二萬五千圓이다。그러므로 이것을 全部 義務敎育費의 基本財產으로 編入하고 小作人에게 耕作시키면 一層 効果가만흘것이다

F、不要存林野의編入

다음은 國有不要存林野의 義務敎育費 基本金에의 編入이다 國有林에는

要存 林과 不要存林의두가지가잇다。前者는 오래 國有로서 保存하자는것이오、後者는 漸次 拂下하거나貸付하거나하야 處分하라는것이다。既往 處分한다면 이것을 義務敎育費에 編入하면 有効할것이 아니냐。昭和七年末現在 不要存林野의 賣却面積은 一萬五百八十八町步、代金三十三萬三千餘圓이엇스므로 昭和七年度末現在不要存林野面積 六百六十三萬町步의 價格은 無慮一億九千九百八萬圓이 될것이다。

軍備宣言한獨逸

中立地帶防備工作

米하와드系紙報告

【華盛頓二十四日發聯合】 再軍備宣言에뒤니여 獨逸政府는다시非武裝條項을 侵犯치안흘가 念慮되는데 스크립하와드系外交記者로 令名잇는 윌리암심스氏는 二十四日紙上에 中立地帶의 防備構築에着手하야 着着 民團을正規軍으로 改編하고잇다고 論述하엿다

海軍演習中止를 米下院議員크氏力說

【電通華盛頓廿四日發】 米國全艦隊의主力을擧하야 알류산群島로부터 布哇에 亘하는 北太平洋海面에 空前의 大演習이 開催되려는이때 미네소타州選出 共和黨議員 세오도어·크리스천슨氏는 二十四日下院에서 日本을 包圍함과 如한右演習은中止하라고 力說하엿다

貿易顧問會議設置

重大國策協議

【東京電話聯合】 商工省에서는貿易顧問會議를 設置하고官民有志를 會合하야 轉換期에잇는貿易의 重大政策을 考究하기로 되엇다 이委員의銓衡에 關해서는 內閣審議會委員의 人選과 併行하야 貿易에關한 練達의 士를網羅할 方針으로 느저도 五月中에 成立시킬터인데 官民一致의 貿易 重大國策을 確立하는以上 政府는 內閣審議會와 別個로 一定한方針을樹立할 必要가잇스므로 右顧問會議設立後 町田商相의主張에 依하야 大藏、外務、商工三省의 協議會를 開催할 模樣으로 町田商相의 阪神地方視察에서 得한知識에基하야 貿易國策의重大原則을 協議할터이다

따늄會議延期

伊太利政府發表

【羅馬廿二日發聯合】 伊太利政府는 廿二日 다늄會議를 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를 如左히 言明하엿다 五月末 羅馬에서 開會할 豫定이던 다늄會議는 聯盟理事會의 招集과 서로 부드치게되므로 六月까지 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 아마 六月六日이다

大藏省首腦部會議

【東京電話聯合】 大藏省은二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 本省會議室에서 首腦部會議를開하고高橋藏相으로부터 左의諸問事項에對하야 協議하엿다 會議는三日間繼續開催할 豫定이다

一、官紀振肅에關한件

一、稅關行政改善에關한件

夕刊後市況 廿五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五四〇	一五六〇	一五三〇
日產	一〇〇六〇	一〇〇六〇	九九〇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九五〇〇	(六〇高)
鐘新	一二六五〇	(三〇高)
日產	一〇〇五〇	(七〇高)
東新	一五三三〇	(一二〇高)

◆訂正 大阪短期後場東新을如左히訂正함

	後谷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五四〇	一五三〇	一五四〇	一五三〇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〇七〇〇 先限 六一〇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〇〇 先限 六〇三〇

初等學校長會議

兒童敎育向上問題協議

京城府公立初等學校長 會議第二日은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府廳會議室에서開催하고 左의指示、注意、協議事項을 中心으로協議하엿다

◇指示事項

一、學校職員의綱紀肅正

二、職業科敎育의充實向上

三、中等學校入學試驗準備敎育外十五項

◇注意事項

一、非常時訓練

二、女敎員의服裝

三、街路樹의愛護外六項

◇協議事項

一、進學兒童의收容力을 增加할에가장適切한良案

二、中等學校入學準備敎育

本社株主總會

本社第二回定期株主總會는 豫定과가치 四月二十五日午后五時부터長谷川町朝鮮호텔에서 開會하고營業報告와貸借對照表를承認하고任期滿了된 監査役을改選한結果 吳泳善、林泰根兩氏重任、朴禎鎭氏新任으로 同三十分閉會하엿다

確實한會社

生命

有利한保險

大同

本社·大阪土佐堀

京城支店·京城府南大門通

擧族的支援의 金字塔
本社屋歷史的落成式
六月十六日吉辰에 擧行될
我報의 曠古的大盛儀

오로지 조선의문화를위하고 조선인대중의 복리를위하야 역경에서 역경으로 피눈물과고투하야 가며 십오년동안 꾸준히나온 본보는뜻잇는선비의 초년이 기구한것과 가티 무항한동정자와 후원자는마치도 유형한물질의은혜이 섬부치못하야경영난에빠젓다가현금과가튼 공고한물질적경영형태를가추고그위에각계의권위와각방의정회를모아진용(陣容)을정비한다유루간중의신문들다시속간한지 삼년에각방의원조와 지지가 실로잔하롤옹죽일듯한 긔세로놀라와서 사운이욱일(旭日)승천의 형세로 진전확충되야 발행부수가 절대다수임은물론 원각방면에잇서 완전한 민중의공복(公僕)이되고 철저한 조선의대변자가되야 명실이함께 조선제일의 됨에맛아 사무의양장(擴事)과 인원의동구(動求)는대사옥(社屋)의 신축을시급히 재촉하는 까닭에본사는 이미이십만원예산을 들어 연평(延坪)일천륙평의오층대양관을 태평통(太平通)에건축중임은 마천하독자의 이미 아시는바이어니와 이래삭여月에건축은 오월말로써 준공케되얏다

그리하야 오는六월십륙일을 긔하야 락성식을거행할 예정이다

생각하건대 그동안 십오년의본보가 걸어온바 험난한길과오늘에 이르러 이마큼성장한것은 이것이 곳조선이천만인의 격려온 풍상이며 삼천리조선사회의 커나는자취인마큼 금일에조선일보의 사옥이 신축락성됨도 이천만인의 리해와 후원을 함께하야온 선물이며이것이앞흐로 멧십에백년을두고 또한 리해와 소장(消長)을 함께할이천만인의 진임을생각할때 본사동인들은 실로무거운 눈물과가슴에매치는감격을금할수업는바이다

三大慶事自祝記念
新聞展覽會開催
來六月十六日부터一週日間
世界新聞文化鳥瞰圖

이와동시에본보가십오년긔념과 사옥신축락성과지령(紙齡)오천호의세가지 경사를자축하는 의미로 지난번에 발표한 십오대긔념사업의하나인신문전람회(新聞展覽會)는 오는六월십륙일 축락성식날로부터 이십이일까지의 일주일동안 본사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얏다 조선에신문이형체로보인지 벌서오십년 축반세긔의시일이 단단히경과하야주보(週報)로부터순보(旬報)、일보(日報)등의계체를다밟아가지고 지금에이르러 조석간십페이지의대신문을발행하고거ㅡ과말아 조선일이판의 복잡한사판제(凸版)외실시와해외통신의직접공급까지 볼수잇는꼿다운 발달을 보여구미선진국의 그것보다는 색이업는 려에에 어르도록한때것 새시대에살고새시대에호흡하는우리들이 만흔 새시대의지배자인저ㅡ널리즘의 분위긔에안저서도아직것이에대한들만한전람회한번도 업섯슴은 크게유감되는바이엇다 이에 본사에서는 락성식을기회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신문전람회를열게된것이니 멀고오랜옛고를은물론가까이는 세계각국의 외갓신문문화에 대한자료를 당에모아써아는바를 도웁고부족한 바를 맥구어세계적 ㅡ널리즘의전모를 한눈에 알수잇도록 할것이다

五百餘支分局總動員
本社支局長大會開催

이천만의대변처이오이천만의리해ㅡ갑흔사랑이되는 명회잇고 자랑ㅡ스러운 우리사의새집을 락성식여 외선문화의 구비한자료를 모아 전람회를여는한편 내외각지에잇는 지분국장대회(支分局長大會)를 개최하기로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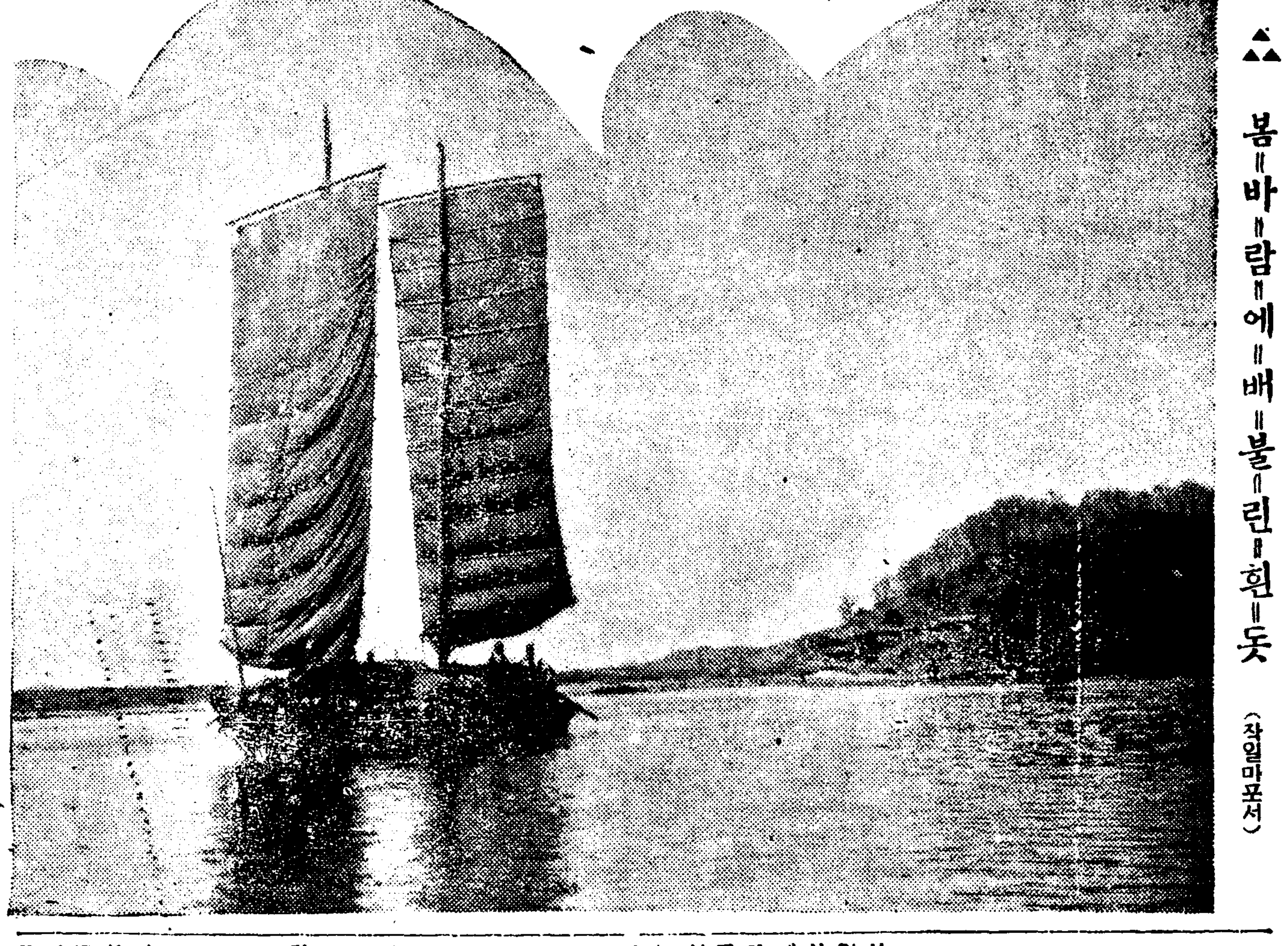
이를 오백여처의지분국장은 본사가 今후선것(中)에 [illegible] 이를본거장 [illegible] (支局長會)으로 [illegible] 과나올 [illegible] 어천만의 이목이되는 [illegible] 올다하야서 민중에 [illegible] 됨이잇도록 [illegible] 기화로하자력에 [illegible] 계에처음보는 [illegible] 것이다

이와가티 본사로서는 긔념 [illegible] 경사로 신축옥이 [illegible] 울은물론 전조선각지방에 [illegible] 까지 조선일보깃발이 [illegible] 예상한다

本社主催産業視察團
今夜十時에發程
團員은定刻에驛頭에必參!

산업조선(産業朝鮮)의활긔잇는명일을 긔약하기위하야 모집한일본산업시찰단(産業視察團)은요전번에보도한바 긔한이왓슴으로 예정대로금이십륙일 밤열시오십분 경성역발렬차로 본사주필 서춘(徐椿)씨와 영업국장 문석준(文錫俊)씨의동행으로 빼무르든시찰의길에오르게되얏다

시절이신록(新綠)의기름진때이라려행에 가장적당함에따라 륙지에선긔차를타고 바다에서는긔선을타며 명승에는자동차를 리용하는등가진 문명의리긔를 모다리용하야가며 질거운려행을 하는외에산업일본의 심수한 속속드리까지를빼치업시 시찰하야산업 조선의광휘잇는 새출발의산 참고가되게할것은물론 일거량득의 의의잇는려행일것이다


▲▲봄‖바‖람‖에‖배‖불‖린‖흰‖돛 (작일마포서)

十二年間歷史가진
衡平運動은終焉
團體名目도大東社로改名
運動目標도急轉向

형평사(衡平社)전체대회는기보와 가티이십사일에 끗을 마첫는데그 다수한 결의중에서 가장주목되는 것은 금번형평사라는 명칭을변개 하야대동사(大同社)라고칭하게되엿어다

아는명칭을 변개하엿슬뿐 아니라지도부에서는 사실로 형평사창설당시의 목표이든 형평운동은이미거진 목적을달성하엿스므로 인제는 운동의목표와 방략을함께 변개할 새단계에도 달햇다는견지에서 새로운방향으로 운동의주력을전환시키기로하고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명칭도고친것인즉실질에 잇서서는형평사와형평운동은이로써 해소된세음이다 일천구백이십삼년 사월이십오일에 전국사십여만의 피압박계급의 해방을부르짓고당시 발흥하든 사회사상의물결을타고 물길과가티 이러나든형평운동은 이래마십이년동안에 그들과대치한 세력과의 직접충돌의회수만해도 칠천팔백이십팔건이요 목숨으로써 이운동의 희생을한사람이 열일곱명이 잇섯다고한다 이번의 명칭변개과 운동의신전개에대하야 동사전 중앙집행위원장 장지필(張志弼)씨는 아래와가티 말한다

최초에 형평운동을 이르킬때에는약십년의 긔간을 예상하고이를 선전(宣傳)사업(事業) 실행(實行)의삼긔로난호고착착이것을쪼차서 진전해왓는데 인제는 대체로이세시기를모다지나보내서형평운동은 완성된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재부터는대중과 가튼「레벨」에서 그들과가튼 보조로운동을전개한다는의미에서 명칭도새로 고친것입니다 운운

도한이번에새로 선거된 중요임원의씨명은 아래와갓다

新任委員
中央執行委員長 千君弼
書記長 金東錫
中央檢査委員長 金棒
中央執行委員 李學述外十七

十二週年記念式

금번대동사로 일홈을 고친형평사에서는 이십오일 오전열한시부터 동대문외 개운사(開運寺)에서 백여명의 사원이모여서 성대하게십이주년 긔념식을 거행하엿는데이는형평사의 명목아래 모힌최후의회합이엇스며 장지필씨의축사와 리재원(李在元)변호사의축사와 기타여흥이잇고 허비함께 엉크린자못 긴장한분위긔속에서 오후다섯시경에 끗마첫다고한다

每月六百萬圓
滿洲國의銀密輸出量
◇安東縣이全國九割을占領

【奉天二十五日發聯合】 미국정부의은법안(銀法案)실시후만주국의은류출(銀流出)은 현저히 증가하야 당국의조사에의하면 최근일개월평균약륙백만원의은(銀)이밀수출되여잇슴이 판명되엿다 이것이만주국의 경제정책을 저해함이막심하야 당국은관동국(關東局)급세관(稅關)과협력을취하야철저히 그취체를행키로되엿스나밀수출지는안동현(安東縣)이최심하야그전액의구할을점하고도문(圖們)이차 산해관(山海關)을 통하야만주국에 류입되는액수는 일개월약삼백만원가량임으로 그차액매월삼백만원의은(銀)이국외에 류출되는것으로최근국폐(國幣)의하락도 이에귀인함이라하야 중국은행(中國銀行)에서는그대책에 부심하고잇다

南浦에雨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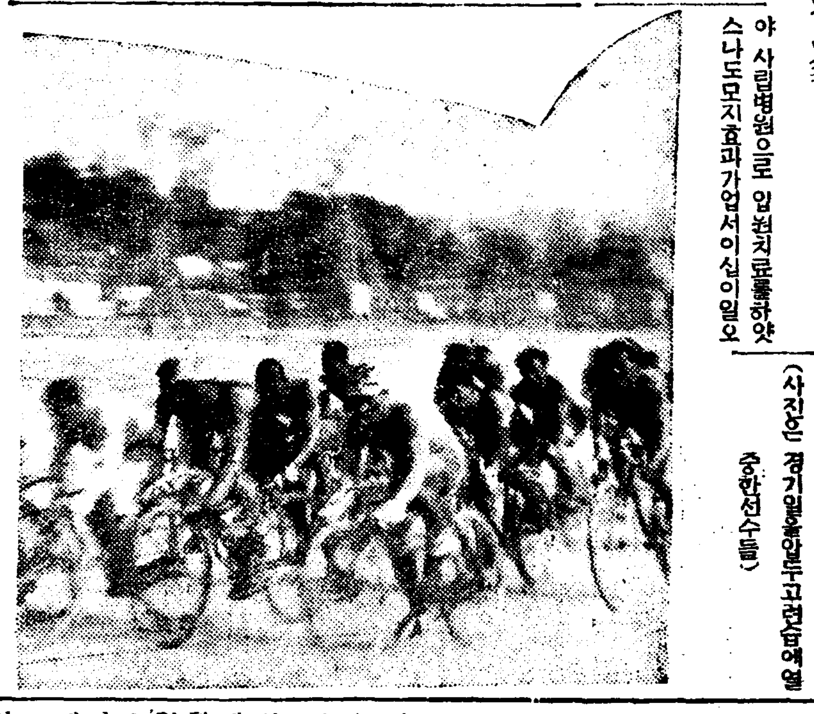
【鎭南浦】 이십오일 오전여덜시 이십오분부터약삼십분동안 호우가오며 여덜시사십오분부터 오분간동안은 콩만큼식한 우박이와잇는데 일반농작물에는 그리큰영향은업슬뿐으로 우량은약팔미리가량이다

醉한官吏가
拳銃으로惹鬧
카페樂園會館에서

이십사일 오전령시반경에 시내종로이정목카페 락원회관(樂園會館)에는술취한신사한명이 예기한명을다리고와서 술을먹다가 그만 폭행을 시작하야나중에는 품속에서권총을 꺼내가지고 휘둘르며실탄을예기에게 던지는등 행패가자못심하야 여급들은 놀라서압뒤로 숨는등 일시소동하엿다 급보를 바든종로서에서는 그곳서원이달려가서 그를검속 하엿는데그는신분을 함구하고 말하지안타가 이십오일 오후에이르러 드듸여철도국에 근무하는 신분이 상당한관리인천상삼길(川上三吉)(假名)(三七)로 판명되여 엄중히경고한후특히 석방하엿다고한다

自殺하며屍體는
研究資料로提供

여러가지 병때문에 삼십년동안이나 고생을거듭하다가 마층내룹에빠저자살을하고시체를경성대학부속병원에 기부하야 달나는유서를남긴 일본내지인로파가잇다 도근현송강시(島根縣松江市)에서출생한 대구보(大久保)다까(七二)라는 [illegible] 야 사립병원으로 입원치료를하얏스나도모지효과가업서이십이일오후륙시경에 독섬 유원지(纛島遊園地)에서 일천미돌 가량 상류한강에서 물에빠저자살을 하고말엇다 유서는두통중 한통은룡산경찰서(龍山署)에 한통은 경성대학병원에부탁하야 자긔시체를 성대병원에보내달나고 경찰서에 부탁하고 대학병원에는자기의 그간수십년래 알은병과 치료경과를장문으로썻스며 조곰이라도 연구에도움이되면 다행이라고 쓰여잇섯다


(사진은 경기일을압두고련습에열중한선수들)

參加選手百五十
追頭한自轉車競技大會
‖嚴福童等古豪들도參加‖
當日의盛況을自期

【京南】 싸이클경긔가스포ㅡ츠화하야 반도스포ㅡ츠계에도 출현하게되자 이으고 최첨단의 것은『메가지스포ㅡ츠』의왕좌를 여지업시 점령하게되엿다 날로각종경긔가속출하는 근대스포ㅡ츠계에 잇서 더욱이빈약한 반도스포ㅡ츠계에이십오년이라는짧지안흔력사를가지고서 오는싸이클경긔는 한때는엄복동(嚴福童)이라는연전연승자의 스피드종아를나허 그를노래로또는담화로방방곡곡에퍼질때까지하엿다 이가티 클라이막스이든싸이클경긔는금일에와선국제올림픽을목표로써 날로진전을보이고잇는이때본사경남지국에서는이의의잇는 경긔를개최하야 조선에긔아로써세계적레벨에여실한속적을끄을고저하는뜻으로 금번 전조선남녀자전거경긔대회(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를 오는이십팔일과이십구일 이틀동안 경성운동장에서 개최하게되엿는데 선수는북으로는 신의주(新義州)를 위시하야 남쪽으로부산(釜山)까지에 일백사십사명의 신청으로 공전에 대성황을 예긔하고 잇는데 특히금번경긔에잇서선 십여년간 그의존재를 몰나든 엄복동(嚴福童)군과 조수만(趙壽萬)군 등 로장선수들이 전부 출전하게되엿고 도자전거예선전에 출전하엿든 함흥(咸興)에 조영빈(曹泳ㅡ)군과경성에리윤백(李允伯)군재고평생(材高平生)신의주(新義州)에 김은호(金銀浩)군제장들이출전하야정패전을 하리라하며 군계일학(群鷄一鶴)격으로 녀자선수들이이십여명이나 도참가하야 더욱이채를띄우리라한다

◇大會任員
▲會長 成俊德
▲大會委員長 金炳獻
▲審判長 羅燦元
▲施賞 李相昊 洪鐘仁 李鐘淳 成文永 李文根 方鐘斗 徐承孝 金昌完 金炳煥
▲總務部 李春成 李命爾 吳慶漢
▲場內司令 張錫奎 洪德禹
▲審判部 韓公植 朴光撥 全昌勳 李鳳州 尹弼求 崔茂盛 張豪俊 白承根 李德俊
▲選手係 張舜錫 李鳳鎬 全昌勳
▲記錄係 高昌禧 李鳳彬 崔福吉
▲出發係 崔順郁 鄭英凡 朴點秀
▲警鐘係 嚴福童
▲周回係 趙壽萬
▲救護班 慈松醫院 權炳祐
▲文學 李順泰
▲警備 東洋少年軍 朝鮮少年軍

鋼筋鐵骨總登場
力技大會는今夜
地方力士들도多數히來集
鍾路青年會後庭에서

반도력기계(力技界)의 저명력사들이 총동단하야그들이 일년동안에꾸준히 단련한 무쇠팔다리를기운것 빰내며 초인간적 괴력을자랑할 제팔회전조선 력기선수권대회는 중앙긔독교청년회 주최와본사운동부 후원미테서 금이십륙일밤여덜시부터 종로청년회관 후정(後庭)에서 장쾌한 막이열리게되엿다 만지는 정도예까지 도달하야잇스며동양에서는 오족 조선에서만력기선수권대회를 년중행사로 개최함이도한 자랑거리가되여잇다 오늘밤에 등단할력사는 사계의권위중앙체육연구소(中央體育研究所)의제일인자김용성(金容星)군외수명과멀리경남진주(慶南晉州)의무명력사남수일(南壽逸)황해백천(黃海白川)의 [illegible] 보(敏文高普)의신진력사로일홍금호김성집(金成集)군등이상의저명력사외에 다수동단하야 과연종래의긔록을 일신시켜 우리력기계의명일을찬란케 할것으로기대된다 이날은동시에거행하려든 기계체조대회는당국의 불허가로중지하기때문에 력기만을하로에 결행하기로되엿스며 일반의입장은무료이나 장내정리비로 십전식을밧기로되엿다한다 동대회의위원과 작년의긔록을 소개하면다음과갓다

▲力技大會委員
▲大會會長尹致昊 ▲副會長具滋玉 ▲委員長李正紀 ▲本部委員金圭冕 宋東植 李健春 玄正柱 田崙鎬 姜憲集 崔在煥 朴容默 張權 ▲審判委員徐相天 李圭鉉 李丙學 李如星 李丙三 李一 玉濟珍 李晶米 金明德 洪萬裕 張三鉉 尹甲重 ▲記錄委員李吉用 李敬幸 高鳳梧 朴忠根 朴榮鎭 朴大熙 ▲設備委員李憲澤 姜秦 外數名 ▲接待委員李性宰 張德 外數名

昨年大會記錄

【輕量級】
◇1 崔今石 (硏友) [illegible]
◇2 趙命夏 (開城) [illegible]
◇3 李容彬 (體硏) [illegible]

【中量級】
◇1 金容星 (體硏) [illegible]
◇2 金鍾圭 (勇體) [illegible]
◇3 梁雨龍 (勇體) [illegible]

【重量級】
◇1 朴明濟 (開城) [illegible]
◇2 金泰植 (勇體) [illegible]
◇3 李根植 (勇體) [illegible]

兩處織物工場罷業
背後疑心코警察嚴查

시내광희정(光熙町)김한우직물공장(金漢雨織物工場)과황금정사정목해동(海東)직물공장의두공장직공二十인조권한명에 대하야삭을십전식을 더올려달라고 이십사일에일제히 동맹파업을 하엿다한다 그들은 공장주측에서 한멀에오전식 더올려주마하여도 응하지안코이번요구는 다른공장직공과 련락하야 요구하는것이므로 자기네들끼리만 응락할수업다고 하엿다한다그래 부내각경찰서에서는엄마전에 서대문서 대창(大昌)직물공장에서도 직공들의일부분 파업이잇섯슴을 호응배후에어떤 사상적인물의 조종이잇지안흔가 의심하야엄밀히조사하는중이라한다

피흘린서울구경
老人은失踪豐出
鄕客들의上京者激增으로
街頭에悲喜劇續出

서울구경을 왓다가 길을일코헤매는시골손이의 가두방황극 네건ㅡ

◇ 령광군읍내동정(靈光郡邑內東町)에서 상경하야 관철동(貫鐵洞)문화려관(文化旅館)에드러잇는신순염(申順葉)이라는로파는이십오일 오후한시경에 바람회구경을나온후 어대롤간지몰르라서 려관에서 소관종로서에 계출해왓다

◇ 아산군인주면대음리(牙山郡仁州面大音里)이백팔십팔번지 조교행(趙敎行)의장녀는이십오일오후여섯시경에관광단에 섞겨서 상경하야경성역에서 종로삼정목까지 전차로와서나린후 어대로간지 몰라서역시그단장으로부터 종로서에계출해왓다

◇ 이십오일 오후다섯시경에 종로삼정목 파출소부근을 길을일코방황하는 두로파를 종로서원이발견하고그서에 보호중인데 그들은전남에서온 김남기(金南基)와류씨(柳氏)로서그날오후에단체에석겨서 상경하엿는데 잠간려관에인도되여 식사를 마치고구경을나왓든길인데 려관이 어듸지도 모르지어 고향의 지명도몰라서방금 그서에서 각방으로 수배하야그들의단체를찻는중이다

◇ 여기는 드되여피로서물드리고 만시골양반의 서울구경ㅡ 전남보성군 벌교면장좌리(寶城郡筏橋面長佐里)에 사는 [illegible] 는단체에석겨서 상경하야 그곳서 바람회구경을 하고 오는도중에 서울에도착하야 구경을 대기다가 오후다섯시경에시내종로 [illegible] 동대문통을떠나서원정(元町)으로향하는전차 일배시철에 치여서 사물성의 상태에빠저 혼도되여잇는것을 부근 [illegible]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매우중태여서회복할가망이 히박하다고한다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제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파대학병원
에서최고최량약으로써 찬양사용하며、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것은 절대유량약을너코 그약효에대해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며『이이상가는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신념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림질치료를 다해보아도효과업는 환자는한로바삐이약으로써 전치되시라

전치자속출、례장이산갓다

山口縣山口市 古屋準吉
본인은 지난일월경부터 림질이 돌발하야、고산구전매소에서 원짜리와 사원짜리를 연속복용하엿더니、심하든동통이업서지고 나어갓읍니다

岐阜縣可兒郡 墨田萬司
소생이 만성림질로 발병할적마다 귀사의 치림제로 전치하엿읍니다 이번에도 재발하엿기에 역시 귀사의 치림제를 복용하야 오날까지 이주일만에、경과가량호합니다 되엿읍니다

新潟縣中頸城郡 石田正義
본인은 림질에 걸리어 이번에 귀사의 림질약을 사용하엿삽더니 차차나어갑니다 깁히사례하나이다

秋田縣平鹿郡 佐佐木雄吉
귀사의 림질약복용후 팔일、림사는 거의보이지안엇읍니다.

鳥取縣東伯郡 谷口輝雄
림질로 고생하엿더니 복약후의 경과가 양호하야 아품과고름이 개이고 보통때와 다름업시 되엿읍니다

府下泉北郡 山本正香
귀사의 치림약복용한후에 재일로 고름이멋지고 쾌차해갑니다

神戶市灘區 山村喜一
의사와 그외의약도 복용하엿습니다마는 전쾌되지도 아니하야 치지에게 귀사의 림질약이 잘낫는다는 말을듯고 세병을 사다가 먹엇습니다 지금은 고름도그치고 아품도개여 전치되엿습니다

香川縣三豊郡 白川優
소생이 매독으로 고생하엿더니 덕분에 그후는날로조하저서 지금엔 아조 거의 국부의상처도 낫습니다 오직 귀사의약의 조흔덕분인줄 아옵고감사하나이다

이상은 지면에 한이잇스므로 례장의 일부를 게재함에 불과합니다 다도본사의주약은 의약학상 최고권위의약으로 정평이잇습니다 그절대효력은 다년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 전치약으로 추장하시는 근본적치료약입니다 하로밧비 이약으로 전치하십시요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약두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약두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이므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읍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鐘路本店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漢江通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本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京町三 有田도락구
馬山京町 有田도락구
水原 有田도락구
淸州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通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賓 有田도락구
大連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安邊郡에大山火
風流山을殆半燒失
列車의煤煙으로引火되야
六百町步燒盡코繼續中

【安邊】 안변군위익면재천리(安邊郡衛益面載川里)세칭풍류산(風流山)국유림에서 지난이십이일오후두시에 발화되엿는데 때마츰의 세인 북서풍으로 화세는때를따라 확위 이일이십삼일오후네시까지 륙백여정보를 소실하고도 오히려진화되지못하고 더욱맹렬한화세로 연소중인데 지금형세로는 도저히진화될가망이업스며 원인은 동일재천리(載川里)를 통과하든 렬차매연에 불려든관계인듯 하다고한다

一面一校制 今年內로完成

【盈德】 영덕군십삼면중영덕면등 보교(公普校)가 귀성되고덕흥(德興)순녕(順寧)고녕(古寧) 삼개면이아직 공보교설치를보지 못하엿든바 우귀삼개면당국은 그들설치코자작년도부터 각기 귀성회를조직코 노력한결과 그중순녕(順寧)면은 학교경수도예상상의 호성적을보이여서 지난달상순경에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공보교지를동면신정리(新亭里)로결정하고개교(開基)를하려는것이옴에영흥군당국에서는동면영암리(靈岩里)로가적당하다는당국대면민간의견불일치로학교설립이지연하게되미로귀성회에서는 장상현(張尙鉉) 장동필(張東弼)김호영(金浩榮)삼씨를방문케하야 역시우귀신정리를 진정하엿다는바 신정리는 지역적으로 보아서는동양지대이르를수엿스나 지형적으로보아 후구지(後丘地)인까닭에일반면민의부역이더할터 이러하야그곳은도저히정경불량이어울뜻하다고한다

製傘組合改制 全州産業組로

【全州】 전주 제산조합(全州製傘組合)에서는 금번판매과목과생산을확장시키고저 전주산업조합(全州産業組合)으로 승격코저 지난삼구일 전주공회당에서 발기총회를개최한후 재반서류를 총독부당국에 제출하엿다는데 근일중인가만되면즉시 영업을 확충하리라한다

草根木皮도燒失한 火田民生途奈何
閉寂든山谷에는哭聲만悽凉
通川鶴一面山火詳報

【歙谷】 귀보 통천군학일면 하화리(通川郡鶴一面下花里)산화 (山火)는 귀보한바어니와 이제 「자세한 내용들으면 발화원인은목탄(木炭)구이하는 가마니에서 불이난것으로 바람이맹렬하야 학일면(鶴一面)서부터답건면(踏巾面)아산리 (峨山里)뒷산까지 연 - 되는 평면이고 소박조원으로된 학일면일대와 답건면은 갈동리에서 매일팔백여명이부가 출동하야 련삼일간 진화공작에 로력하고잇스나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엿다고 하는데 벌서 소실면적이 삼천여정보에달한다하며 그중에도 더욱이비참한것은 산간지대에서 근근히초근목피로 생명을니어가든 화전민들로서 돌연한산화에 주거조차일케되여 고저하든산간에는 그들의곡성소리와 타오르는불소리에 처참한광경을 정하고잇다

鎭興에도山火 十二町步燒失

【鎭興】 지난삼일 오후 네시경에 고령면 모노리 (古嶺面慕老里)일백이십발번지진언규(陳彦圭)의소유산림에서발화하야산림십이정보가전소되엿다는바 손해액은 수천원가량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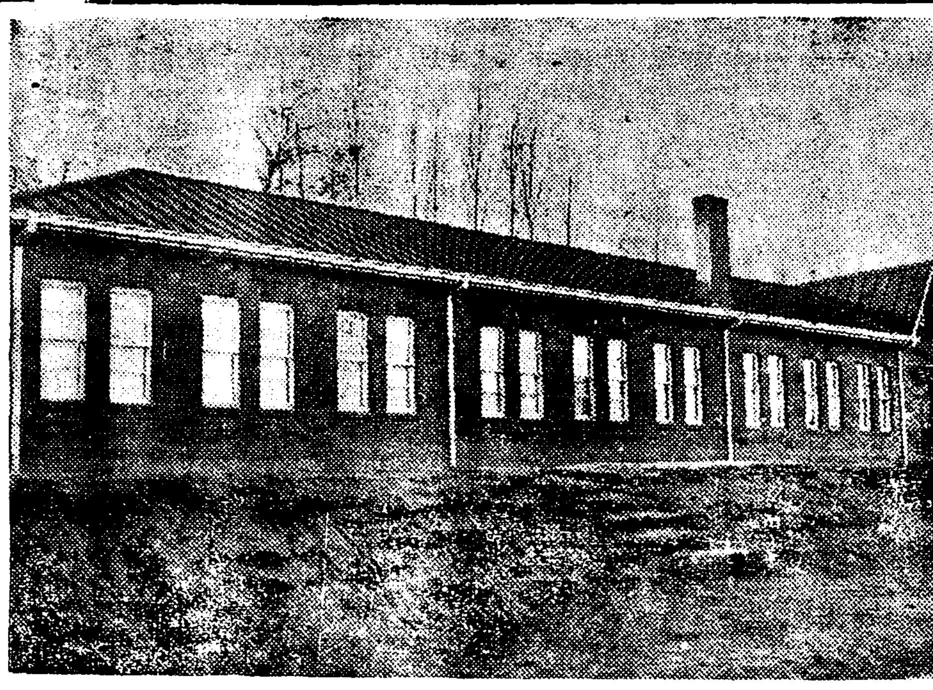
龜城에또山火 淸龍山十步町燒失

【龜城】 지난이십일 천마면 신두동(天摩面新頭洞)과 관동(館洞)국유림에서 불이나 동민과경관대가총출동하야 겨우 진화식혓스나

彰德普校昇格 去十七日附正式認可

【平壤】 평양부외룡산면하리 (龍山面下里)창덕보통학교(彰德普通學校)에서는 삭월이십오일부수업년한륙개년으로하는보통학교승격신청을 총독부당국에 제출중이든바 십칠일부로정식인가지정을바덧다 창덕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이십륙년전인 천구백구년팔월삼십일 창설학교로 창립햇다가 소화륙년칠월에 사립충재산사만오천원으로 재단법인설립인가를바든것인데이것은 고백선행녀사 김영요 (金泳)녀사의거액의기부와평양실업가강용석(姜用錫)씨와리교식(李致植)씨의기부로 성립된것이바 동교의역원은리봉직(李鳳稷)씨(校長)이하한필석(韓泌錫)전요순(全堯舜)등제씨로 현재학생수는 남녀이백사십명이며 작년십월 총공비팔천여원으로 건평구십여평의련와 교사를신축락성하엿스며현재의리사제씨는다음과갓다고한다

◇理事氏名 馬布三悅 韓琢俊 康紀徽 康紀秀 李龍化 李龜化 洪熙濬 韓禹俊 康覺煜 沈益鉉


◇寫眞……昇格認可된彰德普通學校

慶北道內의貧農 十三萬五千餘戶
全農家戶數의約七割

【大邱】 농업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경상북도에는 빈농의호수가총농가호수의 칠할이라는 놀날만한 수자를 내엿다이에그통계를보다면 다음과갓다 도내일도이십이군(道內一島二十二郡)의총농가호수는 삼십사만 구천백이호의 백구십일만오천구백사십구인이바 그중 경작면적 오단니이하 빈농호수는 십삼만오천팔백 삼십륙호의 륙십삼만팔천팔백구십삼인이어라는 총농가호수의 약칠할을점령하엿스며 순전히 농업로동으로만 생활하는자가 일만자천 팔백팔십팔호의 오만구천 사백이십팔인이며 군별로보아 경주(慶州)군의빈농호수 일만오천 팔백사십구호가 소위요농업로동자의 호수는 달성(達城)군의일천삼백구십구호가최고이라한다

川內婦人會好績

【文川】 문천군천내리에서는 도초공보훈도 임생범(林生範)씨외 지도로 작년시월부터 부인회를조직하고 동긔휴가하긔휴가 등을리용하야 회(會)강습도 개강하얏으며매월십팔일을 소집정긔 일노하여 여러가지강연을 들려주며 작년시월부터 지금까지바미(飯米)로 저금한것이 일백삼십팔원 이전에달한다는데 회원은삼십여명이라 한다

四棟六戶全燒에
文川郡에도大火災
死傷者도二名잇서

【咸興】 지난이십일일오후칠시반 문천군도초면제위리 (文川郡都草面際位里)포목잡화상을 경영하는 배창률(裵昌律)의집에서발화하야 때마츰부는강렬한서풍으로인하여 화세는 더욱맹렬하여 것잡을사이업시 린가륙호사동을 전소하고동열한시오십분에 겨우 진화되엿는데 원인은목하 조사중이며 손해는 륙십원인데 배창률(裵昌律)은 화상으로인하여 빈사의중태에 잇스며그손자승빈(昇彬)(七)은소사하엿다고한다

望日學院의曙光
學父兄의熱誠으로 校舍一棟을增築

【宣川】 선천군군산면에잇는망일학원(望日學院)은지금으로부터오십년전에 설립된 장구한력사를가진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향상경영에 곤난을당하야 오든중근년에와서는 해마다 증가하는생도를 현재교실로서는 도저히수용할수업게되여 분득히 교실을증축하지안흘수업게되여동학원의원장박근달(朴根達)씨가일반학부형에게 동정을구하야온바학부형제씨들은 이에감동되여 아래와가티 의연하게되야 교실을 증축하게되엿다하며 학원당국자들은 일반학부형에게 감사함을마지안는다 한다

池鶴河 池瑞沉 各十圓 李基喆 五圓 池瑞徽 池仁聚 李德均 各三圓 朴根達 金炳湖 韓用憲 崔齊恒 韓鳳春 金萬碩 李夢弼 金芝三 車均哲 李基榮 李寶弘 李熙寬 李元弼 各二圓 朴宗鎬 車益豊 崔利泰 朴春成 桂德珩 金孝翰 文致京 朴炳釆 朴秉釆 池四德 韓德寬 李連守 李連榮 韓鳳瑞 崔如僧 李仁伯 崔齊益 朴性訥 金基恒 李張淳 李熙謙 文子璉 池鶴洪 韓成煥 金最默 李基赫 張弘植 朴龍三 池聖海 李三台 朴應藏 李延憲 李孝鏞 韓萬年 金芝鳳 全利元 池龍雲 池鶴鼎 吳履泰 李承華 李進建 李義獻 李國彰 李英學 曹應善 李德見 金德淳 金京淑 安時弘 金永河 魚晶濟 桂龍泰 朴賢則 宋義碩 田文郁 申基周 金景熙 李瑞京 李鳳鎭 吳熙甲 車鎭浩 各一圓 文致衡 李光徹 李炳寬 韓鳳琦 韓益官 韓金石 韓文軒 韓致琦 韓鳳國 全應鎬 李乃憐 李德佑 崔齊華 田柱青 李行元 韓晶朝 韓以官 朴景洽 金秀一 池泰花 金成鳳 韓鎭瑞 金一玄 文致善 李伯俊 李宅鎬 金昌德 田得習 韓佑增 李弘獻 金相順 金基弘 李應基 桂龍洙 各五十錢 金鎭珂 一圓

公普設立코저 期成會猛活動

【金川】 황해도금천군내면(金川郡內面)은오백여호에삼천주민의거주하는 중요지로 교육기관이를비 하여왓씀애 옥에주리는문맹아동이 불소하엿다 이것을유감으로 생각한면내유지들은 작년오월에 공립보통학교 귀성회를조직하고 활동하든중 간이학교 (簡易學校)가연내면외연리(關明里)에 설립되자 이에면내하엿스나 간이학교만으로서는 도저히 아동을다수용할수업서 귀성회에서는 다시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의설립을목적하고 록지의귀부 상천원을거출하야당국에교섭하다고한다

公普校後援會定總

【永登浦】 영등포공립보통학교 (永登浦公普校) 후원회 정긔총회는 이십사일 오후세시부터 동교대강당에서 회장김태진(金泰鎭)씨 사회로 개최하고 소화십년도 결산보고와 동십년도 예산결의외 수건의사항을토의하고 아래와가티 임원을개선한후 총회를마치고 이어서역원회를열고 교사신축 긔부금예정액어만원중 미수액 삼천백여원의 정수방법에 관하야 간담하엿는데 이긔부금미수액이입금되지안흐면 작금의반제를 할수업슬뿐 아니라 교내설비를 예정대로 할수업스므로아직긔부금을내지 안흔사람은속히 납입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

會長金泰鎭 理事白寬永 金國演 許錫昊 鄭寅煥 李承瑞 李昌洙 表振鍾 元鍾喜 李源詩 金敏植 柳東夏 崔俊永 李云 李彝善 柳壽容 金福永 李義鍾 鄭鎭徹 康天與 鄭文善

잇서서 [illegible]木을 [illegible]하-까지 하게되여 흉은이고흉은 안고에서 심어리가념는 갑산저자(甘山市場)까지 수차례왕래다한다 그러케하야저축되든이법서 농우(農牛)가세마리이오 면답이또오십원이엿다고한다

鳳翔産組定總

【全州】 전주군봉동면(全州郡鳳東面)에잇는 봉상산업조합(鳳翔産業組合)에서는 지난이십일에 동조합회장에서 정긔총회를열고 의사진행중 재번중 동조합에서 [illegible]원외 순리익금이잇다는 보고를듯자 조합원은 기쁨에넘처서 박수까지나오게되엿스며 신임원을 좌긔와가티선정한후 산회하엿다고한다
▲組合長 李元求 ▲監事 [illegible] 李[illegible] 鄭[illegible]

울인엇고 상경(三京)도 전선에서 류사주일부 요할 다바상용이엿다고한다

郭山體育會發起

【郭山】 지난이십일일 하오팔시에 정주군곽산지방 유지들은 본보곽산지국내에서 체육회(體育會)를 발긔하얏다는데 곽산에는 완전한체육긔관이 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든바 금번유지제씨의발긔에 일반의찬성을 바란다고하며 총회는이십오일에 역시본보곽산지국 에서 개최한다고하는데 발긔인 씨명은 아래와갓다
洪殷燾 全性熙 李鍾燮 吉澈 金鍾善外三人

李耆信氏特志

【定州】 [illegible]진리귀신(李耆信)씨는당지각지진화원외경영곤난하다는말을듯고일금 백원을 긔증하엿다는데 씨는이번뿐이아니라 여러번 이런사업에투자하엿다한다

長老昇任式

【[illegible]】 진장노교회에서 다년간 교회를위하야힘쓰던 [illegible] 노회의 마송으로 곽산(郭山)의 교회로가게되바 지난이십일오후한시에 전별회가잇섯고 동시에 최세우(崔世祐)씨의 장로된 승임식이 잇슨후 동삼시에 폐회하엿다한다

變心妻에게憤慨 單刀로四人殺傷
妻와丈母는卽死妻叔父子는瀕死
龍岡郡下의慘變續報

【鎭南浦】 평남룡강(龍岡)조하에서한칼로 네명의 사상자를내인참극의 대략은귀보한바어니와 자세한 내용을탐문한바에 의하면범인은 룡강군귀성면 음정리 (龍岡郡貴城面金井里) 조석규 (趙錫奎)(二七)로 동면석성리(石城里) 김서용(金瑞鏞)(二一)이라는녀자와결혼하엿스나 남편에게 불만을품고얼마전에 친정으로간후 남자는수차나 다시살림하기를 간청하엿스나 종시 듯지안음으로 남자는극도로분개하여지난이십일오후여덜시경에 녀자의집을차저가서다시애걸복걸하여보앗스나듯지안음으로준비하엿든칼로녀자의가슴을찔느고이광경을본 녀자의모친 조경해(趙敬海)가고함을 치며달바그로다라나가는것을 따라가며 심장부를 찔러 즉사케하엿다 가해자조는 미칠듯날뛰는것을 막으려고달녀드는 조경해의형 조관검(趙寬檢)(五一)과그의장남정용(鎭鏞)(二三)을차례로찔러 중상케하여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범인은 어데로다라나려고 준비하는것을 룡강서원이 즉시체포하엿다고한다

內七里婦人會의 屋外勞働好績

【慶州】 지난 삼일일 경주군산내면내칠리(山內面內七里)에서는동리부인들이 일제히 모혀서오동리 보리밧을 공동으로 매엿다는데본래이곳으로 말하면 리씨(李氏)네들이 주장으로살아서 작년봄까지는부인네가 밧이라고는 채전 (菜田)에도안나가엿다한다 그러튼것을 그동리유지이고 현구장인 리현택(李鉉澤)씨의 선도으로 작년봄에 부인회(婦人會)를 조직하고 이래 이와가티 옥외로동을 시작하게 되여 심지어김매는 재목운반 - 甘浦幸田木工場이 內七里에

親家가그립다고 本夫毒殺을企圖
平壤法院에서斷罪를기다리는
早婚이나흔慘劇二幕

【平壤】 조혼의폐해와무지가나은 본부독살미수 두건의공판이 한거번에 평양지방법원에서 복본(福本)재판장심리 삼본(杉本)검사립회로 개정되엿섯다 그중하나는평원군영원면문곡리 (寧遠郡寧遠面文谷里)김필수(金畢秀)(二七)는소화구년십일월동리 김소남(金小男)과결혼하고 동생 필옥 (畢玉)(一五)이는동리박태부(朴泰富)와각기결혼하고동거하여오든중그해십이월일일 우물가에서 형제가맛나자 동생필옥은 형에게 「집에가고십허죽겟다」는고하소연하엿다 형필수는「그러면 우리들이각기남편을 죽여버리고손을맛잡고집에가자고 남편에대한명종과본가가그리운생각에서 남편죽이기를 결정한후 은 양잿물을 동생필옥에게주워엇든날 남편의죽에다허섯스나 먹지안어 목적을달치못한것이다 립회검사는 필옥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일년을 구형햇든바 판결에는 범죄의다른차로 무죄가 언도되엇다 또하나는평원군룡흥리 (平原郡龍興里) 김숙녀 (金淑女)(二[illegible])는 가요?」 하면서어리광부리며졸나메어기때문에 방청석까지 웃기엇다 남편백형욱을 중인으로부르기로하고 폐정햇는데 다음공판은 오월일일이라고한다 엇더한 장소인것도 모르고재판장에게할하야「이것도 무어이살인인 려든것으로 공판정에서는 법정이로하여 전후세번이나 남편을죽이 정신밧에 양잿물을 너헛든것을비

起耕報告갓다가 作權빼앗긴作人
憤慨하야調停申請

【咸興】 괴경까지하고입차지주집에 보고하라고갓다가 돌연지주편에서 소작권을내노라는 엄명을밧고 분함을못이겨 조정신청한사건이잇다——안변군 배화면룡연리(培花面龍淵里)김종하(金鍾河)는 소화이년도부터 동군안도면 차산리(安道面此山里)리귀만(李貴萬)소의소유인논동면방교리(方橋里)소재지 구백륙십칠평에대한 작권을 지주에가서 어더가지고 이래딸년간 소작료도지정긔일까지 어김업시 납부하고기타아무 과실이업는데도 불구하고금년사월 십륙일에 그논에 시비(施肥)괴경까지 하엿다는 보고차로 지주의집에갓더바 지주는 돌연전긔토지의 작권을금년부터 방교리(方橋里) 리모에게 주기로되엿스니 곳작권을 반환하라고 추상가튼명령을 함으로하도 어이업고 실망한끗헤 그와가티조정신청을한것이라고한다

장진군신남면 도내리(長津郡新南面道內里)제삼수항에서 수항굴착작업에종사하든 보철을평양운산군 위연면우하동(平北雲山郡委延面牛下洞)에둔 리관거(李寬擧)(三五)와 강산현(岡山縣)에둔 삼경총태랑(三京總太郞)(四[illegible])의 량명이동일오후구시경 작업을필하고 해외로나올려고 암석올적재한「트록크」를 실은「케-지」를라고 수항의 약절반이나올나왓슬지음에 돌연「케-지」가항하(坑下)로떠러지면서 그 반

長津水電에서 人夫二名重傷

【咸興】 일년유에 삼십칠회 칠십여명의 로동자사상사고를 내인 「마」의장진강수전공사장에 또한 건로동자이명 중상사고가발생되엿다 지난이십일 장진군신남면 도내리

江口公普開校式

【盈德】 영덕군내(盈德郡內)에는 현재보통학교를개소가 설치되여잇는바 군면(郡面) 당국에서는일면일교제를 실현 식히라고오래전부터 현안중에잇든바 강구보통학교(江口普校)도기성되여지난이십이일 오전십시부터 각구향실육림시교사로하고 개교식을 성대히개최한바 일반학부형과 관람객으로마창의성황을이루고이어서 개교축하가장행렬이잇슨후폐회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朱時憲氏(前扶安郡守)沃溝郡轉任人事次本報扶安支局來訪
▲李泌東氏(前居昌郡守)蔚山郡轉任人事次本社居昌支局來訪
▲尹瓚氏(現居昌郡守)新任人事
▲[illegible]氏([illegible]郡守)新任人事次本報[illegible]支局來訪
▲[illegible]氏([illegible])新任人事次本報宜川支局來訪
▲[illegible]氏([illegible]山郡守)[illegible]新任人事次本報[illegible]山支局來訪
▲李[illegible]氏(現[illegible]山郡守)新任人事次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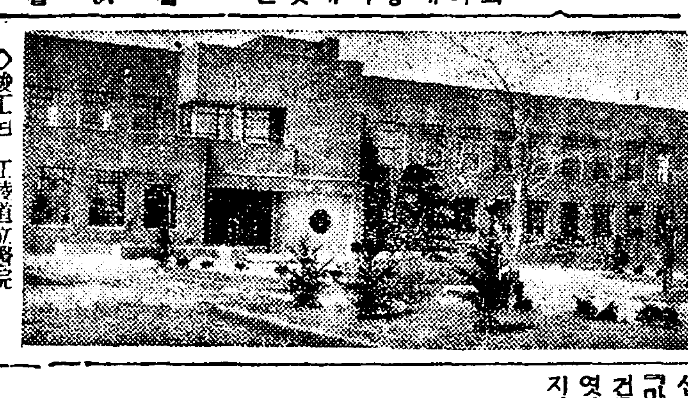
大運動會盛況 全開城市民

【開城】 고려청년회주최재십륙회 개성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 가티 지난이십사일 오전십시부터 부내 만월정운동장에서 거행되엿는바 경기종목은 사십여종이나 되엿스며모여든관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워서대성황에 오후륙시반경에 폐회하엿다한다 중요한경기에 입상된자는 다음과갓다

▲마라손(土城驛往復=十五哩) 一着朴承濬 二着李雲鶴 三着金甲成
▲百米決勝 一着趙雄奎 二着洪命辰 三着金鎭鈺
▲四百米決勝 一着元容益 二着李俊永 三着朴應秀
▲八百米決勝 一着閔成基 二着文錫燮 三着楊光燮
▲五千米競走 一着王仁根 二着吳太石 三着白守基
◇店員自轉車(八週)
▲第一回 一着金永熙 二着洪淳八 三着金圭善
▲第二回 一着崔鳳翔 二着文顯天 三着金泰欽
▲自轉車競走(四十週) 一着 金德鎭 二着 林元東
▲走幅跳 一等 馬鎭國 二等文錫珍 三等 白上福
▲走高跳 一等 洪明辰 二等白上福 三等李俊永
▲棒高跳 一等 趙雄奎 二等韓相源
▲投彈 一等 馬鎭國 二等 黃鎭大 三等 韓大順 韓大吉
▲圓盤投 一等 韓相源 二等黃鎭大 三等 金在一
▲投槍 一等 韓相源 二等 朴應秀 三等 洪天杓
▲團體리레 一等 陸驛軍 二等 松高軍 三等 郵便局

埋築場트럭이 幼兒一名轢殺

【馬山】 지난이십사일오전팔시경에 신마산중앙매축공사장(新馬山中央埋築工事場)에서 유아일명이 흙을실고나려오는트럭차에치여죽사하엿다는데 그는 마산부자산동(馬山府玆山洞)삼백번지에사는리창교(李昌敎)씨의장녀현숙(賢淑)(五)이라고한다


◇竣工된 江陵道立醫院

府議選擧界에大衝動
發表된有權者中 一割五分이失格
納稅等級査定의差違로因해
大邱府當局의失態

【大邱】 대구부회의원 선거를 한달압두고 지난십팔일에 사월일일현재 유권자 수를 명으로 발표하엿든바 등급을사정한결과 등급에 차위(差違)가 생겨 유권자총수의 약 일할오분이칠백명가량의유권자가선거권을 일허버린다는중대한문제가생겨 일반선거관계자에게 큰 충동을준것은물론이니와 한거번에 칠백명의 실격자를내엿다는 것은대구선거게에 처음잇는 일이라하여 그진전여하가 매우중대시 된다한다

즉문제의 위산원인을 듯건대 제의유권자명부는 소화 십년도의 예산회의에서 가결된호별할(戶別割)을긔초한것이바 륙십삼원이상 일부 이부가모다오원이상이 되여 유권자자로서 명부에 긔재되엿든바 그호등급의 변화와 부과호수(賦課戶數)의 증가에따라 금액에 동이 생겨유권자의 최저납세액의 륙십삼원은 일년간의납세액이 오원미만이되여부족인바

(原案)이통과되다면 조선인측에 [illegible]명 일본내지인이백륙십명합계칠백명실명이 실격하게되나 그중에는영업세와호별세납인자등을이철로보아남어지칠백사십여명이자격을잃으리라는바 이문제를 이심원에부러사정회(査定會)에서심의하여오든바 이십사일오전구시청회에서위원전부가 원안을지지하는고로 부당국은 진퇴유곡에빠저 선거게에 처음보는 큰문제화하고잇는바 최후의결정은 오는 사월이십칠일의 부회에서 [illegible] (內務)와재무(財務)의연락이업서 가태도여하에 부당국의실태에대하여일반의 비난이 자자하다고한다

國境蹴球大會
大盛況을豫期하는
本報支局後援으로

【圖們】 도문체육회(圖們體育會)주최와 본보도문지국후원으로 오는오월십일부터 십이일간동안 북조선부만체일회 청소년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도문이 건설된이래 처음이니만큼 자못흥미를끄으리라하며 대회규정은 아래와갓다한다

大會規定
一、優勝팀에優勝旗及現金十五圓을授與하되永久히授與함
二、少年팀은身長五尺까지로함
三、少年팀에는蹴球靴를全혀不許함
四、參加金靑年팀三圓 少年팀一圓
五、申請場所 圖們朝鮮人民會及朝鮮日報圖們支局
六、申請期日 昭和十年五月八日午後三時까지

第五回全朝鮮自轉車競技會
—任員及競技種目—
五月四、五兩日間

【平壤】 평양체육회주최와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개최되는 제오회 전조선 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오월사、오량일간 평양부내 긔림리공설운동장에서 개최키로되여 주최측에서는 준비에분망중인데 대회임원은 다음과가티 선거되엿고 대회순서와 상품도결정되엿다
이번대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일류선수전부가참가하게되엿스며 멀리내지에서도 대표 선수가 참가키로되여 대회의성황은예측키에 주저치안는바이며 지금까지에 보지못한큰 대회가될것이라한다

◇大會任員
▲會長 金炳淵 ▲副會長 金仁京 金容一 ▲總務 金鍾璜 金鳴燦 ▲本部 金允杰 高琰鵬 ▲記錄 金東根 高克 ▲競技記錄 金[illegible] 金容三 ▲施賞 朴承鎬 尹稚順 高有瑜 李鍾浩 李信善 金志直 安遠浩 ▲審判 金聚甫 金元鉉 趙興植 咸明淳 金容一 ▲點呼 金宗燮 鄭九日 李永實 ▲救護 鄭秉觀 ▲警護 少年斥候隊員 少年軍 廣告社一同

◇競技種目 (ヨーム四百米)
▲男子豫選 二十週 ▲女子豫選 十週 ▲男子一流決勝 五十週 ▲同二流決勝 四十週 ▲同三流決勝 三十週 ▲女子決勝 十五週 ▲小兒決勝 六百米

◇賞品
—男子一流— ▲一等 優勝旗一組 現金五十圓 ▲二等 高級포니-自轉車一臺及副賞 ▲三等 高級포라-蓄音器一臺及副賞
—二流— ▲一等 優勝旗一組、高級오니-自轉車一臺 ▲二等 高級懷中時計一個 ▲三等 廣木一疋
—三流— ▲一等 優勝旗、스탄다드受信機 ▲二等 트렁크一個 ▲三等 트렁크一個
—女流— ▲一等 寶石入指環一個、副賞 ▲二等 鍮製火爐一座 ▲三等 鏡臺一座
—都市對抗— ▲一等 白米一俵 ▲二等 트렁크一個 ▲三等 日木二疋
—小兒— ▲一等 三輪車一臺 ▲二等 洋服一着 ▲三等 가방一個
—申請場所— ▲巡營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電話一六一五番 ▲西門通 金仁商會本店 電話一七一三番 ▲大和町 光輪商會 電話一〇九七番 ▲府廳通 兄弟樂器店 電話一四七九番

車輦館
金剛山探勝團員募集
▲出發 五月二十日(陰四月十八日) ▲歸着 五月二十八日(陰四月二十六日)九日間
◇主催 車輦館 ◇後援 朝鮮日報社車輦館支局

開城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時日 五月十一、二日兩日 ▲場所 [illegible]公園
◇主催 松都自轉車選手會 ◇後援 朝鮮、東亞、朝鮮中央三支局

禮山
拳鬪大試合
東京職業選手對京城拳鬪選手
▲時日 四月二十七日午後七時 ▲場所 東一銀行支店特設링-그
◇主催 朝鮮日報社禮山支局

清州
全清州團體對抗庭球大會
▲時日 五月十二日(日曜) ▲場所 清州公立普通學校
◇主催 朝鮮日報清州支局

平壤
全平壤市民運動會
▲時日 五月十二日午前九時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主催 平壤各組合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桃花劇場 四月二十六日부터公開! 토요·일요·축일·晝夜二回公開 現代劇 暴風의선女子 六卷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춤추고노래부르자 ◇파라마운트社特作 波止場의天使 全八卷

優美館 四月二十日부터晝夜三回特別大興行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極樂콩그騷動 透明人間 汝の名は女なり 弱きものよ

特許 イヅミ芳香油 便所臭氣를업시함 臭氣를깨끗이 芳香을發散 大景品

淋疾로苦痛밧는분에게 病狀을明記하사 錢切手를添付하야 照會하시는분께 驗上特效를본 한藥을紹介하야 드리겟습니다 京城府林町二六八番地 金鳳植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의 털나는약 發賣元 東京藥院

產業

絶糧期의作物로 甘藷栽培有望
今年度에京畿道內에서 一萬貫增收를豫想

京畿道富川、始興、開城等地에서는二十餘年前부터 農家에서一種副業物로서 甘藷栽培를試하든바農業恐慌이深刻化하여감을따라 農家의所謂「보리고개」의代用作物로 甘藷를栽培하는農家가 增加하게되어 現在는京畿道內의甘藷栽培가盛旺하게되엇는데 道에서도그栽培의必要를느겨서 昭和三年부터 奬勵에着手하야 栽培法의指導 奬勵 部落의設置 育苗에對한補助等을하야 漸次普及을圖한바 昭和八年은 栽培面積 千六十六町步、收穫二百五十二萬二千五百六十貫 昭和九年는 栽培面積千二百三十八町步、收穫三百八十三萬九千六百九十九貫이라하며今年度는栽培面積五十町步、收穫一萬貫의增産을보리라한다

元來甘藷는瘠薄한土地에도 栽培가可能하며 旱魃에견되는힘이잇슴으로 農家의代用作物로栽培하는데有望하며 食用으로도遜色이업슴으로 그栽培는더욱發展되리라고한다

亞麻栽培 咸南에서大奬勵
今年은國庫補助를바다 作付面積도二倍로增加

【咸興】南亞麻栽培는 昨年부터 豊山、三水、甲山의三郡에六百餘町步를 栽培하여優良한成績을어덧슴으로 今年에는더욱 그栽培奬勵에注力하여 道農務課長이直接地方에出張하여 十九日二十日兩日間亞麻栽培에關한 技術員協議會를開催하고 種種協議한끄테 今年에는 種子代一萬二千圓의國庫補助를바더 作付面積도昨年의倍인 一千二百町步로 大擴張하기로되엇는데 亞麻를一手로買收하는帝國製麻株式會社도 豊山工場을 建築하고六月頃부터操業을開始하기로 決定되엇슴으로亞麻栽培는今後더욱有望視되고잇다

今番은鹽乾魚 鰮魚南洋進出
需要年額一千萬圓

南洋方面에서의鹽乾鰮魚의消費가最近顯著하게增加하야 一千萬圓을確實하리라고 觀測하고잇서今般農林局에서도 그販路開拓을目標로補助金을交附하여가며 奬勵하고잇는데日本內地에서는長崎門司 千葉等地로부터 大阪의鹽乾鰮魚가 蘭印方面에도三井物産의손을것처 輸出하고잇는바 最近四千五百噸을輸出한 千葉産이神戶에 去來된價格은一函에對하야 七、八圓假量으로 充分히採算이맞는다하야 鹽乾鰮魚의海外進出에 크게囑望되는바가잇다 卽釜山物産에서도 昨年에南洋으로부터 照會를바덧고 現在에도千葉縣으로부터注文하는것과가튼 適當品이잇스면 얼마든지送貨하라는照會를再三바덧스나 朝鮮에는 아즉까지注文당로 魚型四寸되는鰮魚가生産되지안흘뿐만 아니라 價格에잇서서도 相値되는點이잇서 當業者等은適品生産에 對하야專心研究를 繼續하고잇는中昨年十一月에비로소 機張爵山 方面에서鰮大槪四寸假되는 鰮魚를發見하엿는데 이것은煮乾해서五六圓이면原價採算에마짐으로今年부터는 一千萬圓의 南洋地方需要를對象으로 鹽乾鰮魚事業으로轉換하는者 續出할것으로觀測되다 元來鹽乾鰮魚는 南洋人이조와할뿐만아니라 製造方法도容易해서漁村의事業으로서 最適한것으로 不遠해서 『모로써ㅣ진』의 輸出實을칠신凌駕하게되리라고하야크게期待하고잇다

農倉利用은 農民에게로
原州서低料開放

【原州】原州郡에서는客年米穀統制法에依하야 原州郡花川里에百坪의農業倉庫와 同郡穀物商面文幕里에五四坪의 農業倉庫를建設하야 該倉庫의貯藏穀을返付한약던바 今日에는 一般農家를爲하야利用시키기로되어 正租一叺에對하야 五錢 大豆一叺에對하야二錢이라는極히低廉한借倉料로 開放하얏는바 現在貯藏量은原州倉庫가二千石이며 窓藏하면七千石은無難하다는바 保險料도農會에서自擔하기로되엇다

漁業保護取締
規則改正에對하야 穗積殖産局長談

二十四日朝鮮總督府令第六十四號로써『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中一部가改正되야 五月一日부터施行키로되엇다는데 改正에對하야穗積殖産局長談을드르면左와如하다

一、黃海北部及渤海에잇서서 漁業保護區域의 設定을하는데對하야는最近日本內地의『트로ㅡㄹ』漁船及機船底曳網漁船의 出漁가이方面에만케되어 沿岸小漁業의保護及魚族의蕃殖保護上 必要가잇슴으로 保護區域의設定乃至禁止區域의 改正에對하야는朝鮮은 本來부터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는 關東州滿洲國에 잇서서도 그必要를 痛感하고 昭和八年十一月以來 昭和九年十月까지前後三回에亘하야 關係官廳이協議한結果 右二漁業에對한保護區域 [illegible] 止區域中에侵入하는事 沿岸小漁業의保護와 水産動植物의蕃殖保護에 萬全을期하기로되엇다

二、그리고打瀨網漁業의 禁止區域에對하야 慶南의그것을改正한것은慶南道內와가튼데는 各種魚類의産卵、發育場으로極히重 [illegible] 또平北에새로打瀨網漁業禁止區域을設한것은同道大和島近海는 방어、장어의産卵場으로重要區域일뿐더러 地元各種漁業의가장主要한漁場에서 近年各方面으로부터 打瀨網의進出이漸增되는傾向에잇서 小漁業者와의衝突緩和를圖할必要가잇슴으로 設하 [illegible] 約은、遞信省에서 [illegible] 에依하기로 되엇슴으로 이에應한改正을加하얏다 以上이 今次의改正趣旨의大要인바 改正內容의詳細는 四月二十四日附 朝鮮總督府官報를 參照하기바란다

年年느러가는 朝鮮의鑛産額
昨年度六千六百三萬圓으로 比前年約二千萬圓增

金價高와産金奬勵에刺戟되야 날로鼓舞되는 朝鮮의鑛業熱은이미絶頂에達하야 드듸어 所謂黃金狂時代를 出現하게되엇다 이제昭和九年度 朝鮮鑛業에對한總督府鑛山課調査에依하면 鑛産總額이六千六百三萬圓으로 前年에比하야 一千七百六十二萬圓의激增이오 鑛區出願에對한手數料及登錄稅는 百七十六萬圓(內鑛業出願關係額이百三十九萬圓 登錄稅가三十七萬圓)에達한다하며 總督府의鑛業助成에對한 補助로는金探鑛奬勵補助金이十七萬圓 製鐵奬勵補助金이二十三萬圓 低品位金鑛石賣人奬勵補助金이 二十三萬圓이라한다

鑛區出願件數 三月中千四百件
破記錄的數字를示現

三月中의 鑛山鑛區出願件數는千四百件에達하야 이때까지의最高記錄인 一月中의千二百件을훨신凌駕하고잇다

龍城産組定總

【慶山】慶南慶山郡龍城産業組合에서는 지난十九日午後一時頃에 同組合倉庫內에서 同組合長黃珍洪氏司會下에 第八回定期總會를 盛大히開催하고 同五時에閉會하엿다는바今年度純利益金이 六千五百七十餘圓이란巨額에達하얏다고한다

泗川蠶種掃立
三千四百枚豫想

【泗川】泗川郡農會에서는農民으로서唯一한副業生産인 今年度春秋蠶의掃立取扱豫想은三千四百四十枚로서 昨年度에比하면 六百八十八枚(三割五分)가 增加한바每年增加傾向에잇스며 生絲價格이漸次騰貴하고잇슴으로 今春繭價에도 好影響이有할것이라는데 養蠶家는 實로活氣를呈하리라고한다

適地栽培奬勵次 本格的土性調査
畓十萬町步를三階級으로區分 京畿道서明年에着手

京畿道農務課에서는 昨年十一月까지 道內二萬町步의耕地에對하야 簡單한 外觀的土性調査를마치고 現在調査成績을 蒐集中이라하며 今年五月까지를 第二期로하야同十一月까지를第三期로하야 耕地를甲、乙、丙三階級으로 나누어詳細한 土壤分析調査를行하야 完全한土性調査를 完了하기까지의應急策으로하리라한다 明年度부터는 五個年計畫으로 道內畓二十萬町步中 十萬町步를甲(벼치五百貫以上의收穫이잇는沃地)、乙(벼치三百貫以上의收穫이잇는 普沃地)(丙벼치三百貫以下를生産할수잇는瘠地) 三階級으로分하야 細密한調査를行하야 肥料配合의基準을삼는同時에作物의適地栽培를 奬勵하리라는바 그調査方法으로는 土壤의定量分析과『헤아리벤치』의試作을並行하야 前者에잇서서는 土壤中에잇는 諸成分을算定하고 後者에잇서서는 諸作物의適地選定을할計劃이라한다

新京管內朝鮮農 收穫六萬餘石
天候不良減收에도不拘코 昨年度의農作如此

【新京電話透通】滿洲의水田耕作에從事하고잇는朝鮮農의數는 全滿에亘하야 約十萬人이라하는데 新京領事館內의朝鮮農은 六千四百二十六人으로 此等朝鮮農의손으로開墾된耕作面積은 四百十三町步인데昨年度는天候不良으로三割五分減收에도不拘하고 六萬三千六百三十四石의收穫을擧하얏다 그리고이를縣別로示하면如左하다

(單位耕作面積은町步、收穫은石)

縣名	耕作面積	收穫高
長春縣	六一九	七、九九七
九台縣	四一三	六、五九三
德惠縣	五八	三三二〇
雙陽縣	一〇八	三、三三一
伊通縣	一、五〇七	二七、四八六
梨樹縣	二一七	五、八八九
懷德縣	一、五一八	一六、七二〇
合計	四、四一三	六三、六三四

海運트러스트 中國興業合作社
五月上海에設立

【電通上海二十三日發】中國側汽船會社는不況打開策으로 各有力中國汽船會社를 網羅키爲하야海運트러스트인中國興業合作社를 決定하게되어 이미交通部의 許可를어덧슴으로 五月一日正式으로 成立되어 上海에事務所를設하기로決하얏다 同社는 國營商招局을中心으로하는것인데 目標는各海運業者의 共同團結及 荷物의分配、運賃의引下等에잇섯는바在中航行權回收에 邁進하기를明한다는旨 發表하얏다

殖銀米資現在高

殖銀二十五日 現在米資融通高는 (單位千圓)

農倉	四、〇六九
米倉	五、七七七
籾倉	三、二五七
其他	七、五一七
合計	二〇、六〇〇

으로 前年同月에比하야 約六十萬圓의增額을示하엿고 年度最高額에比하야 六百萬圓의減額을示하얏다

質疑
[一重復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瞭하게]

問 種豚때사朝鮮種을分讓販賣하는곳을下敎하여주시옵소서 (平北一農生)

答 分讓은道種畜場或은 郡農會에付託하시면 될줄압니다 그外는 京城刑務所又는京城府義州通二丁目東洋畜産興業株式會社에서도販賣합니다

問 陶磁器部賣商과住所를下敎하시옵소서 (忠南禮山市一讀者)

答 鐘路四丁目馬瀨某商店에

◇

問 最近新設된肥料會社와新設된數를下示하야주시옵소서 (平北一農生)

答 咸南興南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인데主要肥料는硫安、硫燐安、石灰窒素等입니다

◇

問 朝鮮農家에서 藁草로써副業으로할수잇는것을下敎하여주시오 그리고除虫菊의販路及種子斡旋所를下敎하여주시오 (平北一農生)

答 藁草에는 여러가지가잇는데 그中에는農家副業으로有望한것도잇습니다 그러나지금말슴할것도업습니다 그리고除虫菊의販路及種子斡旋所는 大阪市北區曾根崎町五 朝鮮物産協會 京城府黃金町朝鮮副業協會에서하답니다

朝鮮蠶業史論 ③……米寬淳

또그外에李圭景氏의『扶桑蠶種東來說』이잇스니 그것은『李圭景』氏著『五洲衍文長箋散稿』『蠶種編』에『我東之有蠶、未知在於何、世而唐張說梁四公記、扶桑之蠶、長七尺、圍七寸、色如金、四時不死……齊西至句麗爲蠶云、然則東國之蠶種來自扶桑而傳於句麗歟……』라는 記錄에서發生한說이나 扶桑은日本이다。

엇지日本에서蠶種이傳하여朝鮮養蠶이始作되엿슬라 이것은唐國『張說』이란사람이 臆測을『梁四公記』에 記한것이니 信할수업는記錄이라 何故인냐하면 『日本書記』神代紀에 『唯有其神之頂、化爲牛馬、顱上生粟、眉上生蠶……口裏含繭便得抽絲、自此始有養蠶之道焉……』이라는 神話가有하나 神話는本來밋기어려운것이며 또口裏含繭便得抽絲라하엿스니 偶然한發見이라볼수잇슴으로 人工的으로 養蠶하엿다고볼수업스며 日本紀年代가科學的으로考察할때에는 日本紀元은『一九〇〇』餘年假量밧게 안되엿다고推理할수잇다 그것은『孝安天皇』은 在位一〇〇年이고其太子 孝靈天皇은 先帝의即位五〇年即八十六歲時에낫스며 또孝元皇은 先帝七十一歲時에낫스며 다른皇帝도 모다上古에잇서서는八十歲頃에誕生되엿다 今世界를通하야 이러한珍奇한現象은日本에만잇스니 信用할수업는一因이요 또古代에는洋의東西區別업시 早婚하는習慣이잇섯는데 日本에서는早婚하여도 子息은八十歲에낫는다는結婚을하게되니 밋지못할것은 上記의事實로도알수잇다 그런데日本史에『垂仁天皇』之朝(紀元六三〇年)二年任那人歸國之際에 赤絹百疋을賜하엿다는記錄이最初오 皇紀七七〇年武帝의命에從依하야 熊襲의農業侵害之弄道를征伐하엿다하니 養蠶의始作됨을 推理할수는잇스나 紀元八六五年仲哀天皇四年에 秦의功滿王이 蠶種을가지고 歸化하엿다하니이것이 日本蠶業의 初期일것이며 또應神天皇十四年에 融通王이 朝鮮廿七縣에서 養蠶業技術者와 絹織業者를 다리고갓다하니 그것이事實이라면 그以後에라도비로소發展을한것이 初期日本蠶業史라는推論을할수잇스니 『梁四公記』는 밋지못할記錄이라할지며 또『後漢書』에『馬韓人知蠶桑作綿布』라하엿스며 三國誌에『辰韓知蠶桑作縑布』라하엿슴으로 勾驪以前에 養蠶이잇슨것은明白하다『扶桑四公記』는 밋지못할記錄이라斷言한다 따라서扶桑蠶種東來說도 否認한다 그러나우리의古記에依하야도 朝鮮蠶業始初를 明證할道理가업스니 『權擥』應製詩에 壇君史官이라는『神誌』의『神誌秘錄』이나 東明聖王時에된百卷이나된다는 『留記』나『李文眞博士』의『新集』이나 또는『高興博士』의『書記』或은『居柒夫』의『新羅故史』나『仙史』가는것이 남어잇스면 우리研究에얼마나 도음이될가생각된다 따라서 考證할道理가無함으로張皇하게되나 朝鮮民族의最初文明起源과 人民의遷動發達狀態를研究하지안으면 이러조그마한企圖라도 水泡에도라가고말것이다 그럼으로 蠶業史에論함바는안니나 朝鮮民族의發展地、東來年代、檀君考、檀君時代制度、文化(外交、農業、醫學等)을簡單히一覽하고 本論에들어갈이論述上만흔便利가잇슴으로付加한다

現存하는우리古史에 檀君世紀를記錄함은 僅一然의 三國遺事니 其中『王儉朝鮮』記에 魏書云、乃往二千載、有檀君王儉、立都阿斯達、開國號朝鮮、與高同時、古記云、昔有桓因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雄率三千、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雄、願化爲人、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日爾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得能忌、而不得人身、熊女者無與爲婚、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以唐即位五十年庚寅、都平壤城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忽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檀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唐裴矩傳云、高麗本孤竹國、周以封箕子爲朝鮮、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通典亦同此

甘藷栽培知識 苗育成法(二)

二、種藷뭇는法

1、種藷의措處=無傷의것을그대로뭇으나 一部가썩은것은 그部分을切棄하고 切口에는 木灰나石灰를 발러가지고 뭇는것이조타 種藷는寒에 冷氣에 接觸하면썩기쉬움으로 貯藏場에서꺼내거든곳뭇는것이조타 特히遠方으로부터 輸送하야온것은 더욱精寒冷氣에 接觸지안토록 注意할必要가잇다

2、뭇는時期는 熱의加減을보아서大體溫度가 一定한때가조타 高溫에接觸하면 썩을念慮가잇다 못는데適當한溫度는 育苗技術品種또는採苗期等에依하야 다르나普通攝氏三十度前後면 無妨하며檢溫은반드시 寒暖計를使用하지안어도苗床에여러고대에손을너어(種藷가잇는分까지) 따뜻한 程度면조타

3、種藷量은種藷의大小와苗의生産本數와의 關係에依하야다르나一個의重量二十匁以上 三十匁以內의것은坪當 六－七貫、三十匁以上四十匁以內의것은 十貫內外가適當하다 이比例로段當所要苗床은二坪이면된다

4、뭇는方法은 크기가고른것을 使用하되頭部를 우로하고藷와藷와의間隔을 一寸內外(藷의大小에依하야適宜히 加減)하고藷의上面은大小의 差가업시一樣히床土中에조곰外로나오는 程度로뭇는가또는床上에 藷를버려노코손흙을藷가조곰表面에 나오는程度로덥고그우에 稻殼이나小麥稈를三四寸의두께로 덥는다

三、苗床의管理

苗床이高溫이되더라도 이에雨水가浸入하면 急히溫度가降下함으로踏込後는 雨水의浸入을防止하도록被覆할必要가 잇다이에는油紙障子가 實用的이나는될수록色이엷은植物油를 발느는것이조타 一層簡易한溫床은이여이라도無妨하다

1、뭇은後의管理=恒常床溫에注意하야 稻殼또는小麥稈로溫度의調節을圖하야 너무高溫(攝氏三十四－三十五度)인때는 稻殼을 시床面의군데군데에 말목(經二寸가량으로 끗을뾰족하게한것)으로구멍을뚤코 冷水를充分히注入하면 熱이降下하야藷가썩을 念慮가업시된다 이에反하야床溫이攝氏二十度以下에 達하는低溫인때는床面에다시 稻殼類를두텁게덥는가 稻藁를經四五寸으로묵거서一面에펴면조타 踏込한뒤數日後에는 床溫이急히發熱하야攝氏五十度乃至六十度로되고 數日後에는急히低下하야 以後全然溫度가上昇치안는 境遇가잇다이는水의不足과 踏込方法이 조치못한境遇에 이러나는 現象으로 이러케되면 그溫度를上昇시킬方法이업슴으로 新規로다시할이得策이다

2、發芽後의管理=發芽하야幼芽가稻殼上으로나오게되면 稻殼을半以上거더내고 乾草或은稻藁를 二－三寸으로잘라 이를엷게덥고 徐徐히日光에쪼이어 苗의徒長을防止하는同時에 健全한苗의育成에努力할것이다 幼芽를急히直射光線에쪼이면 傷함으로數日間은 발을덥퍼 苗가든든하게된다음에 낫에발을것도록한다 夜間은 氣溫이低下하야 때로는降霜으로 苗를損傷하는일이잇스니 降霜의念慮가업기까지는 每夜덥퍼둘것을이저서는안된다 그러나繼續하야 뭇은當時와가티두텁게덥퍼둘必要는업스나 그러고降霜의念慮가全然업게되면 夜間일지라도덥퍼주지말고 될수록苗를生育케할것이다 苗가成長함을따라 床面은漸次로乾燥함으로 때로 灌水하야 水分을補給한다 灌水는 氣溫의 나즌동안은 避하야 朝夕은 避할것이조타 灌水用의水도미리前日에퍼두어따뜻하야진것을 使用하는便이조타 苗가徒長하는境遇는 給水를中止하야床面을乾燥식힐것이조타 苗의伸長이날부다하야 자못給水하면 伸長은促進되나 健全한苗를育成할수업다 往往히速히苗를베기爲하야灌水하고 낫에도油紙障子를 덥퍼 苗를徒長케하는者도잇스나 (이러케하면二四日로 次回의苗를 베일수잇다)苗는非常히軟弱하야 移植하면傷하는일이만흠으로 特히注意하지안으면안된다

四、採苗

採苗方法=苗가適當한長으로伸長하면順次로採苗할것이다 採苗하는時期는 刀物로 切取함이有利하고 普通一—二節을남기고 採取할것인데萬若基部로부터切取하면 二番芽가나오지안음으로 以後採苗할수업게된다 또芽는一—二節을남기고採取하면 五—六番苗까지에는 처음한개에서만二三本을切取할수잇슴으로有利하다

그리고苗는七—八寸乃至一尺內外節數는八節以上百本의重量百匁以上의것이조타

五、採苗後의管理

第一回의採苗後 다시第二回第三回이와가티 同一한苗床에서採苗할수잇스니 이러케하는境遇는每回採苗後에 坪當約二〇匁內外의硫酸암모니아를 水한지게(約二斗)에풀어 使用하든가或은 糞尿를施用한다 그리하면그後는苗의生育도조코 生育量도만타 硫酸암모니아를 施用한境遇는如露(물뿌리는것)또는물뿌리는것으로全面一樣히 撒布하고다시清水를充分히撒布하야 葉에硫安의溶液이부터잇지안토록 洗滌할必要가잇다 그대로두어두면新芽가枯死하야오히려 그로말미아마生育이遲延되는結果를 지을것이니 注意할것이다

小野田納石炭
今年三萬八千噸

總督府鑛山課高橋技師는二十四日平壤에서開催된 無煙炭組合例會에出席、二十五日朝歸任하엿는데 左와如히語한다

今回의例會에서 協議한主要問題는

一、勝湖里의小野田세멘트에納入할石炭의各社配當

二、無煙炭合同會社로부터無煙炭組合에寄附할寄附金이問題인데 前者는 昨年三萬噸을契約한데對하야今年은三萬八千噸의契約이成立되고後者는決定에까지이르지못하고잇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三七八	石炭	咸南甲山郡雲興面	三月二十三日	甲山郡惠山邑 代表者 金源祚
一一三七九	金銀鑛鉛亞鉛鑛	黃海甕津郡西面龍泉面	同	同 李東洛
一一三八〇	タングステン水鉛鑛	同谷山郡伊寧面	同	京城府樂四洞 德萬秀三
一一三八一	金銀鑛	京畿楊平郡靑雲面	同	大阪府三馬郡吹田町 三馬富士雄
一一三八三	金銀銅鉛鑛	咸南新興郡下元川面	同	京畿道高陽郡龍江面 代表者 高丙喆 京城府鐘路六丁目 尹炳泰
一一三八四	金銀鑛	黃海遂安郡大千面	同二十五日	定平郡春柳面 代表者 金良求 同 高鳳村
一一三八五	同	忠北陰城郡遠南面	同	遂安郡遂安面 金榮夏
一一三八六	砂金	平南平原郡德山面	同	京城府唐珠洞 代表者 鄭仁謨 同 峴底洞 文昌郁
一一三八七	金銀鑛	江原道春川郡西面	同	海州郡黃州面 代表者 金鳳鉉 平壤府新場里 李應泰
一一三八八	同	黃海平山郡古之面	同	春川郡西面 洪在浩
一一三八九	金銀鉛鑛	咸南安邊郡瑞谷面	同	京城府漢江通 江口彌八
一一三九〇	金銀鑛	慶北永川郡古鏡面	同	同橋南洞 代表者 全圭喆 昌城郡東倉面 尹邦鉉
一一三九一	同	黃海松禾郡眞風面泉洞面	同	達城郡玄風面 朴芝永
一一三九〇	金銀鑛	慶北永川郡古鏡面	同	達城郡玄風面 朴芝永
一一三九一	同	黃海松禾郡眞風面泉洞面	同	松禾郡眞風面 代表者 呂運赫 同泉洞面 呂有聲
一一三九二	金銀銅鑛	咸北富寧郡三海面	同	淸津府常盤町 代表者 藤田勘一 淸津府浦項洞 羅秉祿
一一三九三	金銀鑛	忠南天安郡葛田面	同	龍仁郡器興面 金正烈
一一三九四	黑鉛	平北定州郡臨海面西面	同二十六日	京城府岡崎町 代表者 中原晋作 定州郡定州邑 林仁善
一一三九五	金銀鑛	京畿振威郡梧城面	同	水原郡半月面 代表者 韓永錫 始興郡南面 岸松太郞 水原郡水原邑 張明漢 同蜂潭面 朴南羲
一一三九六	金銀鉛鑛	忠南靑陽郡斜陽面扶餘郡外山面	同	神奈川縣鎌倉町 代表者 重松發二 東京市芝區白金猿町 河村寬裕 靑陽郡靑陽面 根本尙治
一一三九七	金銀鑛	京畿驪州郡大神面	同二十七日	京城府仁寺洞 代表者 合資會社大成鑛業社 天安郡天安邑 金學永
一一三九八	タングステン水鉛鑛	江原淮陽郡長楊面	同	京城府竹添町 張熙俊
一一三九九	金銀鑛	江原高城郡水洞面	同	通川郡通川面 金鎔煥
一一四〇〇	石炭	全南和順郡同福面	同	光州郡光州邑 袋公平
一一四〇一	金銀鑛	江原高城郡杆城面	同二十八日	天安郡笠場面 金敦培
一一四〇二	同	咸南安邊郡安道面江原道通川郡歙谷面	同	元山府銘石洞 代表者 李秉旭 同本町 崔百龍
一一四〇三	金銀鑛黑鉛	平北楚山郡豊面	同	楚山郡板面 代表者 楊鮮于禧林 同 北鎭面 雲山郡 黃鍾楚
一一四〇四	金銀鑛	忠南禮山郡古德面	同二十九日	[illegible]
一一四〇五	砂金	忠北淸州郡四州面	同	兵庫縣武庫郡本山村 [illegible]

朝鮮鑛業令要論
附關係法令及各種樣式

辯護士 辛泰嶽著

[新刊·四六·版洋裝美本] 定價金二圓 特價金一圓七十錢 [要先金]

發行所 京城武橋町八九 萬有社書籍出版部 電話長光二五一九

總發賣所 京城堅志洞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七六六〇

暴風前夜 (147)
咸大勳作 金熊超畵

떠나는사람들(五)

귀차가 개성을 지낫다 창바게나리는비는 밤이 깁허 갈수록 더욱 줄기차게 나리엇다 엽페안진 마주보시다리를 든五六명의 한떼도 잠이들엇는지 움소리는 나지안코 코고는소리만이 놉게들렷다 다만 두어살되여보히는 어린애를 안은 젊은 안악네하나가 우는어린애에게 젓을 먹이면서 잠을 드리려고『잔다! 잔다』소리로자장가를 부르며 안젓다일어섯다하고 잇슬뿐이다

성희는 잠자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앗다 그리고 영양부족된 그들의 피스기업는 모양을 멀거니 바라보앗다 그때문득 성희의 머리에는 와드부인의 시한구절이 머리에 떠올랏다。

『초최한 사람들이어 그대들은 무엇을 거더드렷(收穫)든고?

……로위하야 누러케익은 밀(小麥)을!。

너희들은 무엇을 뿌렷느뇨?

복수자를 기다리는 인간의 시체를……

상신(喪神)하는 그림자여 배끔하 허덕이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바다가운데서 무엇을 보앗느뇨?……의 조소가운데 우리들의 량식을 가저가는 당당한 배를!

…… ……

창백한 어머니들이어 무엇때문에 (?)허롤하나요 우리들은 죽는게 낫다고 하느니께 긔도를 해요……

어린이들은우리압해 서고잇서도 우리는그들에게 빵한쪽도 줄수업서요

조그만 어린이들아! 너희들의 천진한 얼굴에 눈물이무에냐?

『오! 우리들은 우슴우슴을 몰온다 도죽어가는것들을온다 그러치만 우리는 굶고 굶는다。우리들은 우뭉을 끈칠수 업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항로에서 저주를밧고잇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목식을 버혀간다。

……이 우리들의 토지를 자긔것으로 만든다 오! 그리시도여! 얼마나 우리들은 적롱지엇나이가?

고국의발판에서 우리들은 집도업고 알몸둥이로 그대로귀안과가 터 남인지어마를 갓고 죽어간다는것은 죽어를간다 참으로 천천히 닥처오는 교민과 함께—

개가 죽는것과가치 죽어롤간다 우리들은 걸으면서 집가에서……

성희는 이러케혼자중얼거리며 다시 마주로 떠나가는 그들의험버슨모양을 바라보앗다 생각하면고향의 조을 등지고 정처업시 떠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늘의자비도 업는것것다 그러하여 성희는 『웰스피어』가 그의명희곡『베니-스의상인』에서 『자비라는것은 저ㅣ하늘에서 나리는 보드러운 봄비와 가튼게야… 주는자와 받는자가 모ㅣ도행복스러운것이야!』라는 문구를 얼른 연상하고 『오! 자비를 밧지못하는이의 불행이어!』하고 혼자 깁게 한숨을 쉬엿다 그리고 『아! 자비란 이러듯 귀여운것이엇만 어찌하야 하늘은 그들에게 자비를 주지 안흣가?』하고 하늘을 원망도 해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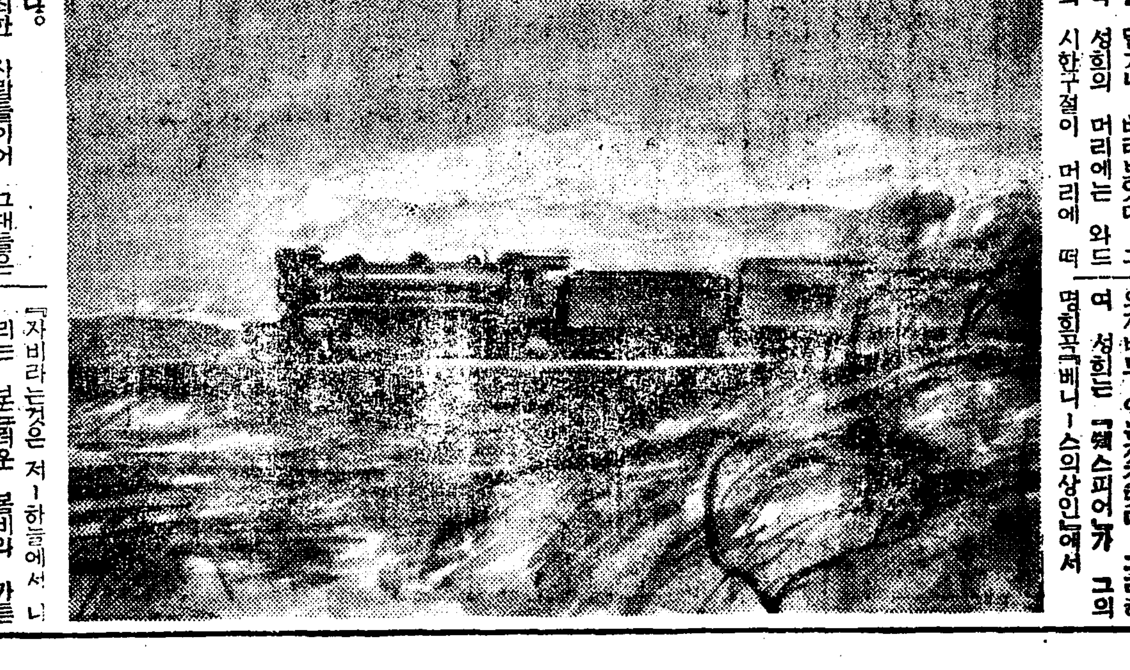
차창을 때리는 비스소리는더욱 굴거간다 폭풍우 험한길을 뚤고 어둠속으로 다름질 치는 긔차는 이따금식 싸이렌을 울려 성희의 애연한 가슴속에 새로운 자극을 주다

『잡이나 좀들어볼가?』

성희는 스프링으로 몸을감고 자리에 누엇다. 그러나 자리도불편하고 어즈러운생각이 머리를싸고 돌아장은 쉽사리오지안는다

『신민씨는 참말어데 계실까? 하르빈 그주소에 계실가? 만일 안계시면 어떠커나?』

굿개마음을 먹고떠난 성희엿만 웬심연지 자긔의 떠나는길이허무한것가티서 이러케 생각도해보앗다 그래나 그순간 성희는

『안야 그곳에서 나를기달릴게야』

하고 머리를 이러케가리 도리 도리흔들고서 방그레 우숨을 우섯다